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2020 June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June 2020, 6월에는

Time 시간 _____

Place 장소 _____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_____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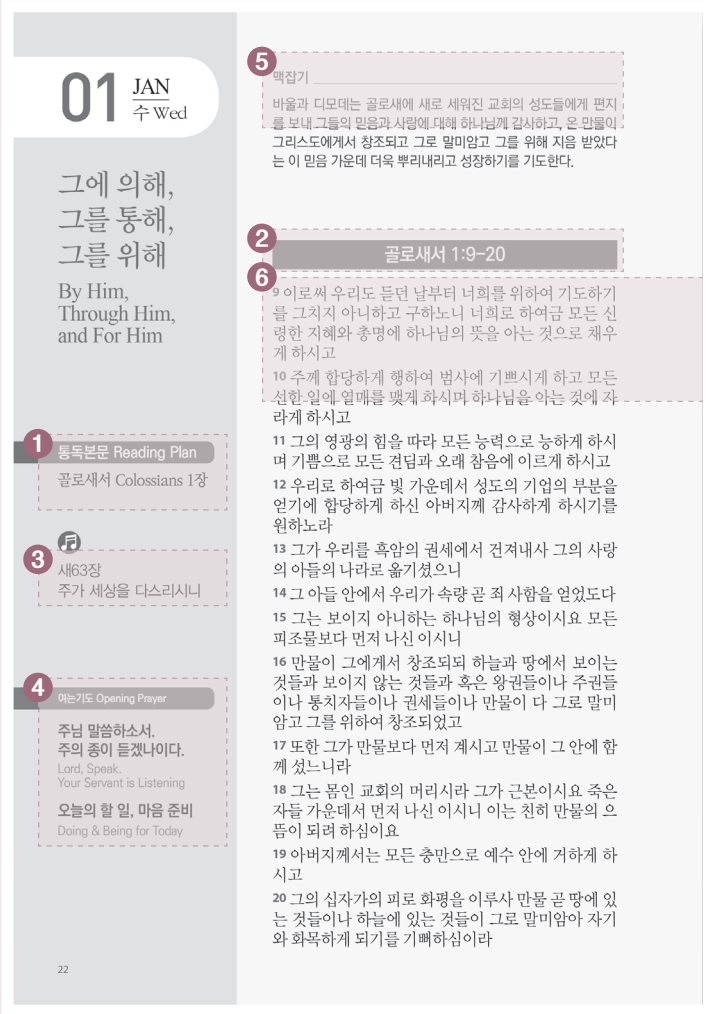
이렇게 활용하세요!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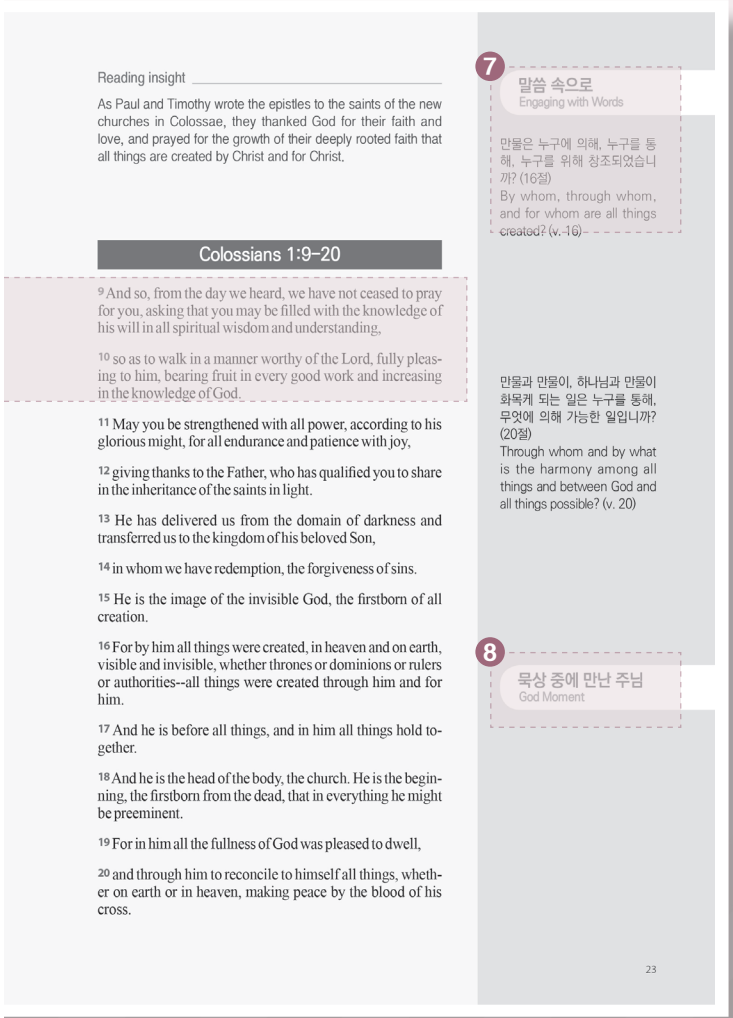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As Paul and Timothy wrote the epistles to the saints of the new churches in Colossae, they thanked God for their faith and love, and prayed for the growth of their deeply rooted faith that all things are created by Christ and for Christ.

Colossians 1:9–20

9 And so, from the day we heard,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sking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10 so a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to him,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11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12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13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14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15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16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17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18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19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20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만물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6절)
By whom, through whom, and for whom are all things created? (v. 16)

만물과 만물이,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케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 무엇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20절)
Through whom and by what is the harmony among all things and between God and all things possible? (v. 20)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3

❹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❺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❻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❼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❽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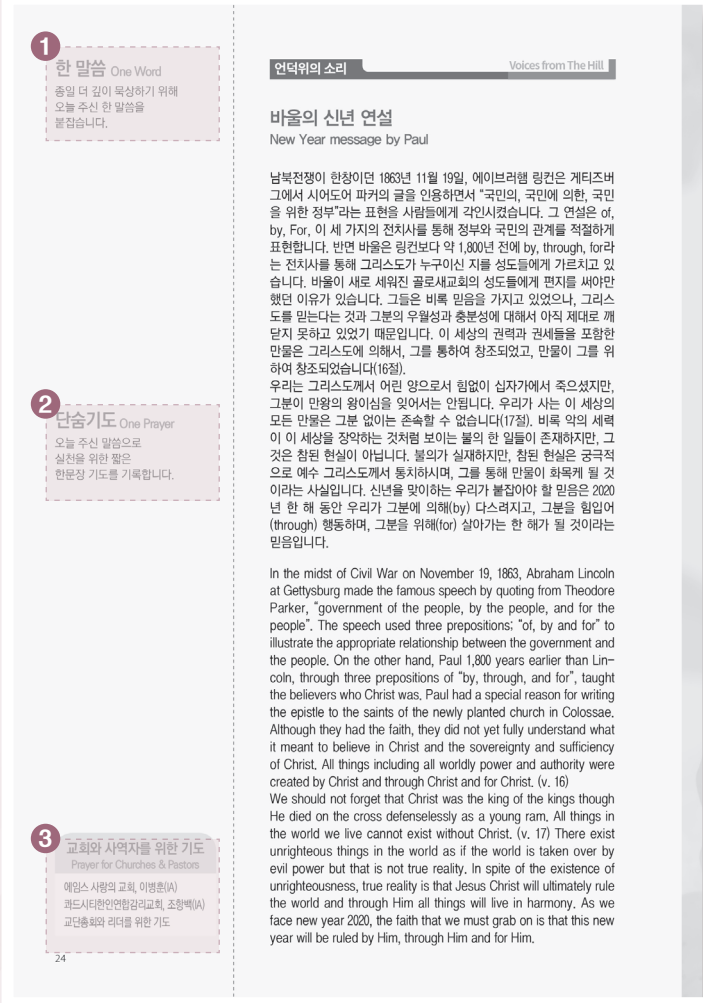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❶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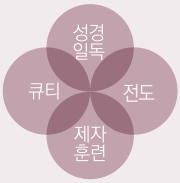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0 June

06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1 욥기 Job 1장 ☐	2 욥기 Job 2장 ☐
7	8 욥기 Job 11-13장 ☐	9 욥기 Job 14-16장 ☐
14	15 욥기 Job 25장 ☐	16 욥기 Job 26장 ☐
21	22 욥기 Job 31장 ☐	23 욥기 Job 32장 ☐
28	29 욥기 Job 39-40장 ☐	30 욥기 Job 41-42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욥기 Job 3-4장 ☐	4 욥기 Job 5-6장 ☐	5 욥기 Job 7-8장 ☐	6 욥기 Job 9-10장 ☐
10 욥기 Job 17-19장 ☐	11 욥기 Job 20-21장 ☐	12 욥기 Job 22장 ☐	13 욥기 Job 23-24장 ☐
17 욥기 Job 27장 ☐	18 욥기 Job 28장 ☐	19 욥기 Job 29장 ☐	20 욥기 Job 30장 ☐
24 욥기 Job 33장 ☐	25 욥기 Job 34장 ☐	26 욥기 Job 35-36장 ☐	27 욥기 Job 37-38장 ☐
		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야기로 알아보는 욥기

욥기는 구약 성경 성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역인 경우엔 세 부분(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헬라어 역인 경우 네 부분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역 성경의 네 부분으로 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율법서 (창세기–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에스더)/ 성문서 (욥기–아가서)/ 예언서 (이사야–말라기).

욥기가 이렇게 성문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 책이 어떤 사실을 기록하려는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교훈이나 메시지를 줄 목적으로 쓰인 문학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데 이 욥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인의 고통"이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 중에 하나라고 하며,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의 한 명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인류 최고의 문학이라고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기가 없었더라면,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단순한 일차원적인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고통" 이란 말부터가 벌써 다른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책들과 욥기를 뚜렷하게 구별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의 구약성서에서 의인은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벌은 악인이 받는 것이며 의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 혹은 "사필귀정"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그 서론에 욥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욥은 아주 드물게 온전한 의인이었다고 1장에서 소개됩니다. 그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시어, 결국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의인됨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통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 책의 서론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 의하면 고통은 어떤 사람이 의인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벌로 받는 것인데, 욥기는 그 시작부터 의인인 욥이 이 세상의 일이나 자기의 행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천상 회의의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욥기가 쓰인 당시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상상을 했을 리는 더욱더 만무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1장의 천상 회의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인 서론을 통해서 욥이 의인인 것도 알고 있고, 그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인 욥을 비롯하여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연단하고 계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악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한 많은 고대인들은 고통을 신의 벌로써 생각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단련과 사탄의 시련이라는 이유로도 고통의 원인이 제시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고통의 이유보다는 고통이

어떤 일을 하는지(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고통의 결과에 집중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욥이 고통받는 것은 무언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지금도 세상 곳곳에 자연재해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고통들을 신벌로 생각하여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에 항변하여 자신의 의의 순전함을 고집하고, 결국 욥과 친구들이 고통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는데, 이 고통에 대한 논쟁과 견해들이 욥기의 주된 본문입니다. 이 논쟁은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는 형식이며, 이런 대화가 세 차례나 반복된 후에 엘리후라는 전혀 다른 인물의 견해가 소개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진행된 욥과 친구들과의 고통의 이유에 대한 논쟁에는 전혀 답을 주시지 않고 당신이 하실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제에 서 벗어난 듯한 말씀에 오히려 욥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사람들이 욥기를 매우 훌륭하지만 또한 난해한 철학적 책이라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목소리나 주인공인 욥의 입장을 대변하여 한 문장으로 단언하여 풀어내고자 하지만, 사실 이런 시도들은 욥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설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다고 해도 욥의 각각의 친구들의 변론들도 값진 철학적 견해들입니다. “의인의 고통” 이란 문제는 인류가 아직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한 깊은 신학적 주제이며, 욥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며 경쟁, 논쟁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 속에서 인류 최고의 문학이라고 불리는 욥기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서론(1장–2장)

II. 욥과 친구들의 대화들 (3장–37장)
- 1. 욥의 한탄 (3장)
- 2. 첫 번째 대화들 (4–14장)
  - 1) 엘리바스와 욥 (4–7)
  - 2) 빌닷과 욥 (8–10)
  - 3) 소발과 욥 (11–14)
- 3. 두 번째 대화들 (15–21장)
  - 1) 엘리바스와 욥 (15–17)
  - 2) 빌닷과 욥 (18–19)
  - 3) 소발과 욥 (20–21)
- 4. 세 번째 대화들 (22–28장)
  - 1) 엘리바스와 욥 (22–24)
  - 2)빌닷과 욥 (25–27)
  - 3) 소발 (27:13–23)과 욥 (28)
- 5. 욥의 자기변호 (29–31장)
- 6. 엘리후 (32–37장)

III. 하나님의 개입과 연설 (38장– 42:6)
- 1.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 (38–39) 과 욥의 복종 (40:1–5)
- 2.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 (40:6–41:34) 과 욥의 회개 (42:1–6)

IV. 결론 (42:7–17)

유재성/New Creation UMC

01 JUN
월 Mon

욥과 그의 가족
Job and his famil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1장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 단점과 흠이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얻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묵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욥기 1:1-11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Reading insight

There is no blameless human being in the world. Even Abraham and David and almost everyone in the Bible had some shortcomings and flaws. Among the honored human beings in the Bible, Job may be the most exalted one. Let us meditate about what kind of a man he is and use the opportunity to look at ourselves.

Job 1:1–11

1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and that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one who feared
God and turned away from evil.

2 There were born to him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3 He possessed 7,000 sheep, 3,000 camels, 500 yoke of oxen, and 500 female donkeys, and very many servants,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4 His sons used to go and hold a feast in the house of each
one on his day, and they would send and invite their three
sisters to eat and drink with them.

5 And when the days of the feast had run their course, Job
would send and consecrate them, and he would rise early in
the morning and offer burnt offering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all. For Job said, "It may be that my children
have sinned, and cursed God in their hearts." Thus Job did
continually.

6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7 The LORD said to Satan, "From where have you come?"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o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on it."

8 And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9 Then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Does Job fear
God for no reason?

10 Have you not put a hedge around him and his house and
all that he has, on every side? You have blessed the work of
his hands, and his possessions have increased in the land.

11 But stretch out your hand and touch all that he has, and he
will curse you to your fac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라는 인간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네 가지 표현은 무엇입니까? (1절)
What are the four expressions used to describe the characters of Job? (v. 1)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2-3절)
What kind of blessings had God bestowed on Job? (vs. 2–3)

욥이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4-5절)
What did Job do to purify his children? (vs. 4 – 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뉴올리언즈한 KUMC, 이동섭(L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욥이라 불리운 사람
A man called Job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을 영어성경에서는 "blameless"라고 번역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소한 흠조차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blameless", 곧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upright)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feared God),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turned away from evil)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열 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수많은 가축을 소유했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한 마디로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에 명예까지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적인 이력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단어들로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The Book of Job applies four different expressions to describe what kind of man Job is. He i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s God and shuns evil. These four labels are the best exaltation for any human being from the point view of Israelites. Blameless in English means "guiltless". It means not even a small dent on his character. As there is a saying that small dust will fall off if even an innocent man is shaken,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who is without even a small flaw. But Job is a man when shaken who does not shed even a small speck of dust.
Job is a blameless and guiltless man. He is upright, and fears God, and shuns evil. The aftermath of his integrity was amazing blessings. He had a happy family with ten children, had numerous cattle and was praised as the greatest man in the region. In a word he was a man blessed with good family, abundant materials, and even the civil honor and respect. If you write your own spiritual curriculum vitae what kind of words will you use to describe yoursel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2 JUN
화 Tue

욥의 두 번째 시험
Job's Second Test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장

새479장(통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인생의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생에 고난을 단 한 번만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난과 불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욥기 2:1-10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Reading insight

Trial in our life does not settle as onetime event. How wonderful would our life be if we experience trial just once in our lifetime? But distress and unhappiness in our life does not resolve as onetime event. The distress to Job reveals the naked reality of human being.

Job 2:1–10

1 Again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the LORD.

2 And the LORD said to Satan, "From where have you come?"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o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on it."

3 And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He still holds fast his integrity, although you incited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reason."

4 Then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Skin for skin! All that a man has he will give for his life.

5 But stretch out your hand and touch his bone and his flesh, and he will curse you to your face."

6 And the LORD said to Satan, "Behold, he is in your hand; only spare his life."

7 So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struck Job with loathsome sores from the sole of his foot to the crown of his head.

8 And he took a piece of broken pottery with which to scrape himself while he sat in the ashes.

9 Then his wife said to him, "Do you still hold fast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10 But he said to her, "You speak as one of the foolish women would speak. Shall we receive good from God, and shall we not receive evil?" In all this Job did not sin with his lip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2장에 나타난 두번째 천상회의는 1장의 첫 천상회의와 어떻게 다릅니까? (1-6절)
What is different about the second Divine Council meeting in Chapter 2 from the first Divine Council meeting of Chapter 1? (vs. 1-6)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8-10절)
What does Job's wife say to her husband? What is the best care you can provide when your loved ones are in distress? (vs. 8-1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리스빌연합감리교회, 나길석(LA)
디트로이트제일중앙 UMC, 김대기(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It is not an end

욥은 자녀와 재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치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며 만일 욥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무자비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 역시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녀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아내, 그녀의 절규는 단지 욥에게 향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Job lost his children, possessions and all he had. In spite of all his loss, he does not blame God but praises Him. How wonderful it might have been if his story ends here. Regretfully his trial has not ended here.
There was another Divine Council meeting. God extolled Job for fearing Him in the midst of distress and not acting immorally. Satan challenged God by claiming that all the possessions of a human being are not as valuable as his life and different result would arise if a physical suffering is inflicted on Job. With the permission of God, Job is afflicted with painful sores all over his body, and he takes a piece of broken pottery and scrapes himself with it as he sits among the ashes.
Having watched her husband suffer, Job's wife tells him to curse God and die. It is easy for us to consider her ruthless and ungodly. But let us think about it. She also lost her beloved children and all her possessions. Job's trial is also her trial. No, it could have been much more than that. Having felt powerless as a wife as she watches her beloved husband Job suffer, her cry is not simply directed to Job but maybe to herself. It is so painful to her that she wants to die after blaming God for all her calamiti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3 JUN 수 Wed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으로 응답하다

Eliphaz's First Response to Job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4장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때로는 백 마디의 말보다 침묵이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천 마디의 위로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욥기 4:1-8, 17-19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Reading insight

Sometimes, silence is more significant than hundred words. Sometimes being there with the hurting brings more relief than saying thousand words of comfort. Today's scripture is to meditate on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offer sympathy to a person in distress.

Job 4:1–8, 17–19

1 Then Eliphaz the Temanite answered and said:

2 "If one ventures a word with you, will you be impatient?
Yet who can keep from speaking?

3 Behold, you have instructed many,
and you have strengthened the weak hands.

4 Your words have upheld him who was stumbling,
and you have made firm the feeble knees.

5 But now it has come to you, and you are impatient;
it touches you, and you are dismayed.

6 Is not your fear of God your confidence,
and the integrity of your ways your hope?

7 "Remember: who that was innocent ever perished?
Or where were the upright cut off?

8 As I have seen, those who plow iniquity
and sow trouble reap the same.

17 'Can mortal man be in the right before God?
Can a man be pure before his Maker?

18 Even in his servants he puts no trust,
and his angels he charges with error;

19 how much more those who dwell in houses of clay,
whose foundation is in the dust,
who are crushed like the mo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What is the reason why Eliphaz cannot tolerate his friend Job? (vs. 1-5)

엘리바스가 욥의 행위를 비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7-8, 17-19절)
What is the basis for Eliphaz's accusation of Job's actions? (vs. 7-8, 17-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 KUMC, 신경림(MI)
디트로이트 KUMC -영어부, 김인호(M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백 마디 말보다 귀한 것
More precious than hundred words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의 불행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올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복된 일입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아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음이라 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엘리바스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욥이 당하는 고난도 결국은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위로는커녕 욥의 상처만 더욱 덧나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더러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있어주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말없이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Job's friends come to see Job as he has experienced horrible distress beyond description. When you have friends, who traveled a great distance to see you to share your misfortune, you are a blessed person. Job is not shy to show off his sufferings to his friends. All the pains and sadness suppressed so far come to surface at once. Job finally opens his mouth and let out his feeling of sorry and says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Job if he had never been born.
As Job's friend Eliphaz observes him on the side, he feels uncomfortable. He might have thought that Job crossed the line which he should not. Eliphaz asserts that there is no one righteous in the world and Job's distress is the price he is paying for a sin that he must have committed without knowing it. This argument is not wrong. No one is perfect in the world. Man has a tendency not to remember shortcomings or mistakes.
Eliphaz's advice does not comfort Job but further aggravates Job's wounds. We sometimes face similar experience. To people who are under distress and difficulty, even a right word would not be any help. Sometimes just being there, being empathetic and listening quietly would be rather much more comforting. What kind of friend are you to a friend in distr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4 JUN 목 Thu

욥의 두 번째 발언

Job's Second Speec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5-6장

새272장(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엘리바스는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욥에게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본인도 모르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고통으로 인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스스로 침묵하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욥기 6:1-13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Reading insight

Eliphaz tells Job who is crying out of sufferings that nobody is perfect in the world. Eliphaz reproves Job to be quiet and not to act precipitant out of suffering because there are transgression and faults committed without knowing. Today's scripture is a rebuttal of Eliphaz's reproach by Job.

Job 6:1-13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Oh that my vexation were weighed, and all my calamity
laid in the balances!

3 For then it would be heavier than the sand of the sea; therefore my words have been rash.

4 For the arrows of the Almighty are in me; my spirit drinks
their poison; the terrors of God are arrayed against me.

5 Does the wild donkey bray when he has grass, or the ox
low over his fodder?

6 Can that which is tasteless be eaten without salt, or is there
any taste in the juice of the mallow?

7 My appetite refuses to touch them; they are as food that is
loathsome to me.

8 "Oh that I might have my request, and that God would fulfill my hope,

9 that it would please God to crush me, that he would let
loose his hand and cut me off!

10 This would be my comfort; I would even exult in pain unsparing, for I have not denied the words of the Holy One.

11 What is my strength, that I should wait? And what is my
end, that I should be patient?

12 Is my strength the strength of stones, or is my flesh
bronze?

13 Have I any help in me, when resource is driven from m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은 자신의 말이 다소 거칠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Why does Job say his words were somewhat harsh? (vs. 1- 5)

욥이 친구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며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2절)
What did Job expect from his friend, and why did he despair? (vs. 11-1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현준(MI)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유승찬(MN)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감의 능력
Power of empathy

욥은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저울에 달아 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무거울 것이다. 내 말이 거칠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1-3절) 욥의 거친 언어는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요 울부짖음 이었습니다. 욥은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과 기력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혜롭고 경험 많은 어머니라면 우는 아이를 업고 "아이고 우리 아이 많이 아프구나"하고 달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냐고, 언제부터 아프냐고 따져 묻기 이전에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와 똑같이 몸소 경험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Job said, "If my misery could be weighed and my troubles be put on the scales, they would outweigh all the sands of the sea. That is why I spoke impulsively." (Job 6:1-3) Job's impetuous words are his moaning and howling out of pain that is unbearable to any human being. Job complains that he is exhausted and has no strength left to sustain.
Eliphaz's reproach appears to be rational and reasonable. But those are no help at all to Job. Rather they aggravate Job's pains. The problem with Eliphaz is that he does not offer even slightest capability for empathy. Imagine a mother consoling a sick and crying baby. If she is a wise and experienced mother, she would have carried the crying baby on her back and tried to comfort the baby by saying, "Eiku eiku, my baby is very sick!" Before asking why the baby becomes sick, or when the baby starts to feel ill, it would have been more humane to share the pain and be empathetic.
We feel greatly comforted when we look at the cross because of the fact that God became incarnate and personally experienced exactly the same pain as we would ha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5 JUN 금 Fri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Job Cries Out to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7-8장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친구에게 어떤 위로도 도움도 얻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 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욥기 7:1-5, 16-20

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삯을 기다리나니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Reading insight

Job cries out to God because he does not receive any comfort or help from his friends. Can you feel empathy for his pain through his words?

Job 7:1–5, 16–20

1 "Has not man a hard service on earth, and are not his days
like the days of a hired hand?

2 Like a slave who longs for the shadow, and like a hired
hand who looks for his wages,

3 so I am allotted months of emptiness, and nights of misery
are apportioned to me.

4 When I lie down I say, 'When shall I arise?' But the night is
long, and I am full of tossing till the dawn.

5 My flesh is clothed with worms and dirt; my skin hardens,
then breaks out afresh.

16 I loathe my life; I would not live forever. Leave me alone,
for my days are a breath.

17 What is man, that you make so much of him, and that you
set your heart on him,

18 visit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19 How long will you not look away from me, nor leave me
alone till I swallow my spit?

20 If I sin, what do I do to you, you watcher of mankind?
Why have you made me your mark? Why have I become a
burden to you?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은 자신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5절)
How does Job describe the physical pains that he endures? (vs. 1–5)

절망한 욥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까? (16-19절)
Under despair, what does Job ask God? (vs. 16–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 한인복음 UMC, 윤국진A(MN)
미네소타 KUMC, 백성범(MN)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Please leave me alone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유명 인사들이 인터넷 악플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순식간에 폭력으로 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느낀 감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괴로운 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3절) 차라리 숨이 멎어버렸으면, 죽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15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제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16절)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을 한번 꼴깍 삼키는 동안 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19절)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심도 이젠 싫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처럼 설령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도대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가 있길래 그러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절망한 욥은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합니다. 이혼 선언입니다. 그는 그만큼 힘들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With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Cyber-violence is also rampant. We sometimes hear that famous people committed suicide upon agonizing over comments on internet articles. Too much spotlight on someone has a tendency to turn into instant violence. That may have been a feeling that Job feels about his friends.
"Nights of misery have been assigned to me." (v. 3) "I prefer strangling and death." (v. 15) Now Job's eyes are pointed to God in the middle of indescribable sufferings. "I despise my life; I would not live forever. Let me alone." (v. 16) "Will you never look away from me, or let me alone even for an instant?" (v. 19)
Job does not like to draw attention from his friends nor even from God. He is begging to be left alone. Even if his friend Eliphaz is right about his argument that God is punishing Job with sufferings because of his sins, Job raises a question what harm his sins brought to God.
Despaired Job dares to demand the severance of relationship with God. He appeals separation from God. His life is so painful and he is so despair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6 JUN 토 Sat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

Job complains to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9-10장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망한 이유는 보다 근원적이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욥기 10:1-9, 18-20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8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Reading insight

Job's friends think that Job is trying to assure his righteousness to God. But Job does not admit his own righteousness. His reason for his despair is rather fundamental and deeper.

Job 10:1–9, 18–20

1 "I loathe my life; I will give free utterance to my complaint; I will speak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2 I will say to God, Do not condemn me; let me know why you contend against me.

3 Does it seem good to you to oppress, to despise the work of your hands and favor the designs of the wicked?

4 Have you eyes of flesh? Do you see as man sees?

5 Are your days as the days of man, or your years as a man's years,

6 that you seek out my iniquity and search for my sin,

7 although you know that I am not guilty, and there is none to deliver out of your hand?

8 Your hands fashioned and made me, and now you have destroyed me altogether.

9 Remember that you have made me like clay; and will you return me to the dust?

18 "Why did you bring me out from the womb? Would that I had died before any eye had seen me

19 and were as though I had not been, carried from the womb to the grave.

20 Are not my days few? Then cease, and leave me alone, that I may find a little cheer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9절)
What is Job's defense against God? (vs. 8-9)

욥의 절망과 탄식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18-19절)
What do you feel through the despair and lament of Job? (vs. 18-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박형두(MN)
세인트루이스 KUMC, 이명균(MO)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어찌 그리하시나이까
Why are you doing this?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9장 2절)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흠을 잡으려 하시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고백합니다(9장 22절).
그럼에도 그는 고통 가운데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욥을 잉태케 하시고 진흙을 빚듯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매 순간 자신의 호흡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10:8-11).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그래서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대상에게 느끼는 절망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Job knows. He knew that there is nobody in the world who can claim to be self-righteous in front of God. (9:2) No matter how hard a human being tries to be good, if God decides to find a fault in that human being, nobody can escape from Him - he confesses that "Innocent or wicked, it is all the same to God"; nobody can hide from the judgement of God. (9:22)
In spite of that, Job appeals to God in the middle of his pain. Why is God giving Job such harsh sufferings whereas God had allowed Job to be conceived through his father and mother and he was formed like a clay by God. God gave life and love and supplied what he needed when he needed and kept his breath at every moment but why is God so harsh on him now? (10:8-11) Job laments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e were not born, and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e had died in mother's womb and directly gone to the grave.
What Job cannot stand is not only physical pains but also disappointment toward God. It is a doubt about God's love. It is the feeling of despair and betrayal that he feels for God whom he believed and loved so muc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고통의 아름다움"

조희수 목사 (산타 클라리타 감리교회)

어떤 랍비가 2차 대전 전에 중국을 다니러 갔다가 그의 교통 수단이 손수레인 것을 처음으로 겸험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지로 인해 그치치 않는 기침을 하며 고통스레 힘을 다해 손수레를 끄는 인력거를 보며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다. 자신의 편리함이 누군 가의 고통에 대가라는 것에 마음이 상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지인이 말하기를 "몇 칠만 지나봐! 기침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후엔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닐테니" 그리곤 진짜 거짓말처럼 인력거의 기침소리가 더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가 인력거의 기침소리처럼 하나님께 들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고통과 환난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가진 것이 모두 자연의 해로 재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과 환난은 마치 떼어놓을 수 없는 톰과 제리 와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에게 주어진 고통과 환난은 우리에게도 언젠가 닥쳐올수 있는 고통과 환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통과 환난은,

1.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들을 하면 인생의 환난을 피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올바른 선택으로 어떤 일들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파워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신으로 승화시키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선행들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2. 고통가운데 우리를 만나 시길 원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3.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4.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아를 들 여다 볼수 있습니다. 욥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지 말씀해…" (2절) 나의 속사람을 들 여다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합니다.
5. 다른 사람들의 기침(아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아중심인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이들의 기침소리에는 무심한 우리가 그 소리를 기울 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고통도 아프지만 이웃의 고통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아팠던 시간들을 기억해서, 인력거의 기침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안락함에 이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오늘 하루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08 JUN 월 Mon

계속되는 욥의 대답
Job Continu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11-13장

새372장(통420장)
그 누가 나의 괴롬 알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친구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으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욥기 13:1-12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8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common argument of Job's friends is that nobody is righteous in front of God and Job is punished by God because of his sins. What is Job's reply to their rationales?

Job 13:1–12

1 "Behold, my eye has seen all this, my ear has heard and understood it.

2 What you know, I also know; I am not inferior to you.

3 But I would speak to the Almighty, and I desire to argue my case with God.

4 As for you, you whitewash with lies; worthless physicians are you all.

5 Oh that you would keep silent, and it would be your wisdom!

6 Hear now my argument and listen to the pleadings of my lips.

7 Will you speak falsely for God and speak deceitfully for him?

8 Will you show partiality toward him? Will you plead the case for God?

9 Will it be well with you when he searches you out? Or can you deceive him, as one deceives a man?

10 He will surely rebuke you if in secret you show partiality.

11 Will not his majesty terrify you, and the dread of him fall upon you?

12 Your maxims are proverbs of ashes; your defenses are defenses of cla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항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3, 13:2)
What does Job consistently protest against his friends? (12:3, 13:2)

욥이 생각할 때 친구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13:7–8)
What is wrong with the argument of Job's friends from the point of view of Job? (13:7–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A(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네가 아는 만큼 나도 안다
I also know as much as you do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주장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친구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여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적절치 않은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은 올바른 때에 말해져야 그 정당성을 얻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분노합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고 나는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2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감히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주제넘은 일이라고.(8절)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기 이전에 섣부른 신학과 지식으로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도 검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라고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The assertion that nobody is righteous in front of God is theologically correct. As Job's friend Zophar stated, God is vast and controls all our thoughts and deeds. There is no fault in this statement. But the problem is that these words are not proper for a person who is suffering.
Correct words are not necessarily always right words. Words receive proper justification when spoken at a right moment. What Job needs is not correct words. What Job needs is heartfelt sympathy and love.
Job is angry at them. Job says to his friends that what they know, he also knows and he is not inferior to them. What Job's friends dispute is a presumptuous act to pretend to be God's lawyer. (13:8)
We sometimes make similar mistakes. Before we even recognize the pains of others, we pass false judgement and condemn others with shallow theology and knowledge. We are neither a spokesperson of God nor a prosecutor for God. We are called to mend the wounds of neighbors with love of God and to sympathize with the pains of neighbo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9 JUN
화 Tue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응답

Job's Reply to Eliphaz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14-16장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니 입을 다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장합니다. (15장 2-4절)

욥기 16:1-6, 18-21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Reading insight

Job's friend Eliphaz states that Job is engaged in unnecessary arguments and disrespecting God. Eliphaz asserts that Job is experiencing distress because of his sins and flaws and therefore Job should shut his mouth up and repent in front of God in humility. (15:2–4)

Job 16:1–6, 18–21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I have heard many such things; miserable comforters are you all.

3 Shall windy words have an end? Or what provokes you that you answer?

4 I also could speak as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I could join words together against you and shake my head at you.

5 I could strengthen you with my mouth, and the solace of my lips would assuage your pain.

6 "If I speak, my pain is not assuaged, and if I forbear, how much of it leaves me?

18 "O earth, cover not my blood, and let my cry find no resting place.

19 Even now, behold, my witness is in heaven, and he who testifies for me is on high.

20 My friends scorn me; my eye pours out tears to God,

21 that he would argue the case of a man with God, as a son of man does with his neighbor.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4절)
What does Job say why his friends do not understand him? (16: 3–4)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19–20절)
Who does Job say is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his pain? (16:19–2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
Crying out to God

친구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욥은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인 고통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비난합니다.
이제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할 곳 없는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아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은 비록 자신을 조롱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19, 20절)
때때로 우리는 욥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친구도 심지어는 핏줄을 나눈 가족들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며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Because of continued attacks from his friends, Job has to endure spiritual pains in addition to physical pains. Rather than sympathizing with and acknowledging Job's pain, his friends distort Job's words and blame him for howling in pain.
Job now has no place to go to complain about his pain, and confesses that only God knows his situation. Even though his friends ridicule him, Job says he cries out to God. His true witness is in heaven, Job says. (16:19–20)
Sometimes we experience similar situation as Job. We feel at times that our pains are not understood by our friends or even by our family. But as Job confess, God is your witness and God knows your pain and suffering. This is why we have no choice but to cry out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0 JUN 수 Wed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다

Job's Reply to Bildad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17-19장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통 가운데서 욥은 과거에 알던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속한 세계와 모든 인간관계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타인이 되어 버렸음을 발견합니다.

욥기 19:13-27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Reading insight

In his misery, Job finds that he has become a completely disconnected stranger from his former friends, from his world and from all his relationships.

Job 19:13-27

13 "He has put my brothers far from me, and those who knew
me are wholly estranged from me.

14 My relatives have failed me, my close friends have forgotten me.

15 The guests in my house and my maidservants count me as
a stranger; I have become a foreigner in their eyes.

16 I call to my servant, but he gives me no answer; I must
plead with him with my mouth for mercy.

17 My breath is strange to my wife, and I am a stench to the
children of my own mother.

18 Even young children despise me; when I rise they talk
against me.

19 All my intimate friends abhor me, and those whom I loved
have turned against me.

20 My bones stick to my skin and to my flesh, and I have escaped by the skin of my teeth.

21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O you my friends,
for the hand of God has touched me!

22 Why do you, like God, pursue me? Why are you not satisfied with my flesh?

23 "Oh that my words were written! Oh that they were inscribed in a book!

24 Oh that with an iron pen and lead they were engraved in
the rock forever!

25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26 And after my skin has been thus destroyed, ye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27 whom I shall see for myself, and my eyes shall behold,
and not another. My heart faints within m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고통은 욥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켰습니까? (13-19절)
How does Job's hardship change his human relationship? (vs. 13-19)

욥이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27절)
What is Job's firm belief and hope? (vs. 25-2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한동수(CO)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한상신(N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낯선 세계, 낯선 사람들
Strange world and strange people

욥이 당한 고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살아왔던 익숙한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하인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음과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욥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잿더미에 앉아 온몸에 난 종기를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낯선 세계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멀리에서 찾아와 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던 과거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욥은 과거에 알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속한 세계와 인간관계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타인이 되어 버렸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뵈울 때 그 하나님은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오래전부터 아시고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거라고. 당신은 언제 세상 속에 타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십니까?

Job's trial meant severance from the familiar world he has lived. He lost his beloved children. He also lost all his possessions and all his servants. He could no longer hear the lively bustling and laughter. When you lose possessions, people leave you. Job was even betrayed by his beloved wife.
When Job found himself one day that he was scraping sores all over his body with broken piece of pottery in the heap of ashes, he realized that he was abandoned in a strange world totally different from what he was used to.
Fortunately, he has close friends who come to visit from afar. But sadly, his friends are busy reproving his faults rather than sharing Job's pains. They are no longer Job's beloved old friends. They are complete strangers to him.
Deeply immersed in pains, Job finds himself to have become a complete stranger totally disconnected from the people whom he once knew and from the world to which once he belonged and from all human relationships. In spite of that, he is still hoping. One day when he can see God with his own eyes, He will not be unfamiliar to him. That God is God who knows, remembers and loves Job for a long time. When do you find yourself become a stranger in this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1 JUN
목 Thu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다

Job's Reply to Zophar

맥잡기

욥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의 고난은 죄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와는 정반대인 현실을 봅니다.

욥기 21:7-18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0-21장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The prevailing reasoning by Job's friends is that the source of the human suffering is the consequence of sin. They assert that Job's distress is caused by his sins he has committed. But what Job see is quite an opposite reality.

Job 21:7-18

7 Why do the wicked live, reach old age, and grow mighty in power?

8 Their offspring are established in their presence, and their descendants before their eyes.

9 Their houses are safe from fear, and no rod of God is upon them.

10 Their bull breeds without fail; their cow calves and does not miscarry.

11 They send out their little boys like a flock, and their children dance.

12 They sing to the tambourine and the lyre and rejoice to the sound of the pipe.

13 They spend their days in prosperity, and in peace they go down to Sheol.

14 They say to God, 'Depart from us! We do not desire the knowledge of your ways.

15 What is the Almighty, that we should serve him? And what profit do we get if we pray to him?'

16 Behold, is not their prosperity in their hand? The counsel of the wicked is far from me.

17 "How often is it that the lamp of the wicked is put out? That their calamity comes upon them? That God distributes pains in his anger?

18 That they are like straw before the wind, and like chaff that the storm carries awa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발견한 부조리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7-13절)
What is the prejudiced reality that Job has observed? (vs. 7-13)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do Job's friends' arguments fail to persuade Job?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배상철(V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악한 자가 잘되는 세상
The World where the wicked prosper

사람은 누구나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의 자손과 재물이 번성하며 심지어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이냐고.(8-13절)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 한데 왜 그들은 부와 행복을 누리냐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 간다고.(25절)
정의가 실종된 부조리한 현실을 목격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욥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은 악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와 번영을 누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까?

All human beings long for a righteous world. In righteous world the wicked are punished and the righteous are blessed.
But we can see that the real world we live in is so much different. Job questions that how come the children and riches of the wicked prosper and how come the wicked even go down to the grave in peace? (vs. 8-13) Considering all the evil they have committed they deserve to receive the cup of the wrath of the Almighty but why are they enjoying richness and happiness? On the other hand, some suffer without reason and die in bitterness of soul. (v. 25)
When we witness the absurd reality that justice is missing, we are angry about God as well as the world.
Job tries to live honestly and good in his own way. But what comes to him is suffering. Friends' claim that human suffering is the result of sin loses persuasion in an absurd world where the wicked are not punished and enjoy wealth and prosperity. How can you sustain your faith in God in an absurd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2 JUN
금 Fri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

Eliphaz's Third Speec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2장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욥이 발견한 현실은 삶의 부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도 결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욥기 22:12-14, 21-30

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4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Reading insight

The paradox Job discovers is irrationality in life. If God exists, it is hardly acceptable. In the end, his hardship is approved in an understanding of this reality. Listen to his friend, Eliphaz.

Job 22:12–14, 21–30

12 "Is not God high in the heavens? See the highest stars, how lofty they are!

13 But you say, 'What does God know? Can he judge through the deep darkness?

14 Thick clouds veil him, so that he does not see, and he walks on the vault of heaven.'

21 "Agree with God, and be at peace; thereby good will come to you.

22 Receive instruction from his mouth, and lay up his words in your heart.

23 If you return to the Almighty you will be built up; if you remove injustice far from your tents,

24 if you lay gold in the dust, and gold of Ophir among the stones of the torrent-bed,

25 then the Almighty will be your gold and your precious silver.

26 For then you will delight yourself in the Almighty and lift up your face to God.

27 You will make your prayer to him, and he will hear you, and you will pay your vows.

28 You will decide on a matter, and it will be established for you, and light will shine on your ways.

29 For when they are humbled you say, 'It is because of pride'; but he saves the lowly.

30 He delivers even the one who is not innocent, who will be delivered through the cleanness of your hand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13-14절)
How do the wicked misunderstand God according to Eliphaz? (vs. 13-14)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23-28절)
What does Eliphaz say will happen to those who fear and rely on God? (vs. 23-2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 KUMC, 최진용(M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Reconcile with God?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현실을 목도한 욥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1장)
22장은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의 반박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하나 세고 계신 분이라고. (12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히 듣는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것은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과 화해하는 길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While observing the real world where the good suffer and the wicked prosper, Job points out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God. If God is interested in this world, it should not be. (Chapter 21)
Chapter 22 is a rebuttal of his friend, Eliphaz, who heard Job. God is counting every star in the sky. (v.12) It's not too late to be reconciled to God and not consider God your enemy. Then God will restore Job again. The prayers of those who truly depend on God will be answered by God, and everything he does will go well.
How do you feel when you hear the message of Eliphaz? Eliphaz's opinion is probably the most common sermon we hear in the church. But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is not so simple. Eliphaz tells us to reconcile with God. Perhaps even more urgent for us is to find a way to reconcile with our own reality. It may be far from the sermons we hear every Sunday. How can you find this path of reconcili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3 JUN 토 Sat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다

Job's Response to Eliphaz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3-24장

새92장(통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진리도 발견할 수 없던 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욥기 23:1-12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Reading insight

Job cannot detect any words of comfort or any truth from his friends, naturally turned to God. But God is not found anywhere.

Job 23:1–12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Today also my complaint is bitter; my hand is heavy on account of my groaning.

3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him, that I might come even to his seat!

4 I would lay my case before him and fill my mouth with arguments.

5 I would know what he would answer me and understand what he would say to me.

6 Would he contend with me in the greatness of his power? No; he would pay attention to me.

7 There an upright man could argue with him, and I would be acquitted forever by my judge.

8 "Behold, I go forward, but he is not there, and backward, but I do not perceive him;

9 on the left hand when he is working, I do not behold him; he turns to the right hand, but I do not see him.

10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out as gold.

11 My foot has held fast to his steps; I have kept his way and have not turned aside.

12 I have not departed from the commandment of his lips; I have treasured the words of his mouth more than my portion of fo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
Why does Job hope to meet with God? (vs. 3-5)

욥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12절)
What is another reason why Job wants to see God? (vs. 10-1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숨어계신 하나님
The hidden God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고통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것을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서 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딘 가에 계실 텐데,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느 학문도 어느 지식인도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질문은 왜 자신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고 반드시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 the midst of suffering, Job is eager to meet with God. He thinks that if he can see God, he will be able to speak about his situation and hear God's answer to his suffering because only God knows that he has lived honestly and faithfully.
But God is nowhere. If he goes east, God is nowhere. If he turns to west, he cannot see God also. God must be somewhere at work, but there's no way to find Him. God is a hidden God to him.
We struggle with a lot of questions.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ither philosopher nor any intellectual in the world can answer us. For Job, the question might have been why he should suffer so much.
What question do you wrestle with today? What questions do you want to ask God? How can you hear God's respons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MAY · 주일

1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오르막길

김재천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목사)

도시에 비해 시골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몇 년 전 고향을 찾았다. 고향 집으로 가는 언덕의 큰 오르막길은 잘 닦여 있었지만, 할머니와 손을 잡고 나섰던 좁은 길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어린 시절, 그 좁은 길을 통해 큰 오르막길을 넘어 시내를 다니곤 했다. 한참 동안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어디 즈음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언덕의 오르막길을 찾게 된다. 소나무 숲 한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언덕 오르막길은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는 기준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언덕 오르막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종종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도 언덕을 발견하거나, 넘어갈 때면 그때마다 평화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언덕에서 종종 친구와 동생들과 함께 누가 더 집으로 빨리 갈지 달리기 경주를 하곤 했다. 당연히 발이 빠른 형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 먼저 집에 도착했다 해서 경주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이 앞서지는 않았다. 신영복 선생님이 "함께 가자 우리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라는 말처럼, 그 언덕을 지나 모두 함께 집에서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참 평안이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이다(욥기 2:3). 이 같은 욥과 함께 하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욥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욥기의 하나님은 욥 앞에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꽤나 알고 있는 듯한 젊은 엘리후까지 세우신다. 그들은 훈계를 마다하지 않는다. 욥이 믿고 있는 신앙, 그의 중심에 둔 모든 것을 뒤집어 흔들어 놓는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흔드는 말은 때로는 앞뒤가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의 친구들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욥을 무시하기도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욥은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신들의 틀 속에서만 욥을 생각하면서"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기도하는 일조차 포기한 사람이 아니냐"(욥기 15:4)고 비판하기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욥의 마음은 어떠할까? 욥은 자신을 가리켜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여종까지도 무시하고, 아내는 살아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자신을 역겨워한다"라고 고백한다(욥기 19:13–17).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다(욥기 19:21). 누군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욥기 19:23).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것처럼, 욥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 배려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기꺼이 베푸는 호의와 사랑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가르친다. 신명기 2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신다.

"아내를 맞은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신명기 24:5).

믿음의 공동체가 결혼한 부부에게 일 년 동안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징집도 하지 않고 시간을 배려해 준 것이다. 배려 받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보이나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다. 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바라기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 그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때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비난하며 말한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희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공감은 모두가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준다.

담쟁이가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오르는 것처럼, 오늘도 작은 발걸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한 걸음씩 함께 걷고, 함께 나누며, 함께 공감하며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르막길을 걷고자 한다.

15 JUN
월 Mon

빌닷의 세 번째 발언

Bildad's Third Speec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5장

새510장(통276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4장에 나타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욥의 분노와 고발에 대해서 친구 빌닷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 봅시다.

욥기 25:1-6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Reading insight

Let's hear what his friend Bildad says about Job's anger and accusation against social injustice.

Job 25:1-6

1 Then Bildad the Shuhite answered and said:

2 "Dominion and fear are with God; he makes peace in his high heaven.

3 Is there any number to his armies? Upon whom does his light not arise?

4 How then can man be in the right before God? How can he who is born of woman be pure?

5 Behold, even the moon is not bright, and the stars are not pure in his eyes;

6 how much less man, who is a maggot, and the son of man, who is a wor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2절)
What is the appearance of the kingdom of God that Bildad presents? (v. 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선우 혁(RI)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평화
God's Sovereignty and Peace

욥이 고발한 불의한 세상의 모습에 대해 빌닷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빌닷의 말의 첫 부분은 마치 주기도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분은 이미 하늘에서 평화와 질서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자주 암송합니다. 그 기도의 첫 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려지는 곳이라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의 작은 변화와 실천을 통해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In response to the unrighteous world Job has experienced, Bildad talks about God's kingdom and sovereignty. The first part of Bildad's words reminds us of the Lord's Prayer. He says that God carries sovereignty and majesty, and He has already established peace and order in heaven.
We often recite the prayer Jesus taught. At the beginning of the prayer, it says "Hi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t is the teaching for us to pray that the will of heaven will be accomplished on earth.
What Jesus taught us is that heaven and earth are not separated. If heaven is governed by God's sovereignty, this earth is the place where God's rule is materialized. We are called to bring the kingdom into the way of life on earth.
The work of God's kingdom on earth is progressing step by step through our transformation and practices that seem meager. What can you contribute to realize God's rule here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6 JUN
화 Tue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다

Job's Reply to Bildad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6장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6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말은 욥기 안에 있는 작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전하는 지혜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6:1-14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Reading insight

Job's words from chapter 26 through 28 are considered a miniature Talmud. Listen to Job's whisper of wisdom.

Job 26:1–14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How you have helped him who has no power! How you
have saved the arm that has no strength!

3 How you have counseled him who has no wisdom, and
plentifully declared sound knowledge!

4 With whose help have you uttered words, and whose
breath has come out from you?

5 The dead tremble under the waters and their inhabitants.

6 Sheol is naked before God, and Abaddon has no covering.

7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void and hangs the earth
on nothing.

8 He binds up the waters in his thick clouds, and the cloud is
not split open under them.

9 He covers the face of the full moon and spreads over it his
cloud.

10 He has inscribed a circle on the face of the waters at the
boundary between light and darkness.

11 The pillars of heaven tremble and are astounded at his re-
buke.

12 By his power he stilled the sea; by his understanding he
shattered Rahab.

13 By his wind the heavens were made fair; his hand pierced
the fleeing serpent.

14 Behold, these are but the outskirts of his ways, and how
small a whisper do we hear of him! But the thunder of his
power who can understan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빌닷에게 그의 지혜와 영감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Why does Job ask Bildad where his wisdom and inspiration come from? (vs. 3-4)

욥은 놀랍고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What does Job say we need to learn from the amazing and mysterious appearance of nature? (v.1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속삭임
God's Whisper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상대적 연약함을 주장한 빌닷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빌닷의 지혜의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삶의 진리로 인도하며 악한 자는 지혜를 멀리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욥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웅장함과 오묘함에 대해 감탄하고 놀라지만 사실상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작은 속삭임을 들을 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Job agrees with Bildad's assertion of God's sovereignty and man's weakness. But he asks again where Bildad's words of wisdom come from.
The Bible says that the origin of wisdom is God. All wisdom is grace and gifts from God to us. The Book of Proverbs teaches us repeatedly that wisdom leads us to the truth of life, while the wicked keep away from it.
Job says we admire and marvel at the grandeur and mystery of God's universe, but in reality, these are just a few of the things that God discloses. We only hear His little whisper, and we have no way of fully understanding the depth of God's wisdom.
Our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God is a sense of amazement. It is our acknowledgment that God is the Almigh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7 JUN 수 Wed

나는 몹시 괴롭다
I Am Desperat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7장

새410장(통468장)
내 맘에 한 노래있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7장의 전반부에는 인간이 의의 길을 떠나게 하고, 유혹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불의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방법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고 한다.

욥기 27:1-12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11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Reading insight

The first half, in essence, lists all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tempt man to forsake righteousness; the second half lists all the ways an unrighteous, yet seeming profitable, perishes in the end.

Job 27:1–12

1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2 "As God lives, who has taken away my right, and the Almighty, who has made my soul bitter,

3 as long as my breath is in me, and the spirit of God is in my nostrils,

4 my lips will not speak falsehood, and my tongue will not utter deceit.

5 Far be it from me to say that you are right; till I die I will not put away my integrity from me.

6 I hold fast my righteousness and will not let it go; my heart does not reproach me for any of my days.

7 "Let my enemy be as the wicked, and let him who rises up against me be as the unrighteous.

8 For what is the hope of the godless when God cuts him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

9 Will God hear his cry when distress comes upon him?

10 Will he take delight in the Almighty? Will he call upon God at all times?

11 I will teach you concerning the hand of God; what is with the Almighty I will not conceal.

12 Behold, all of you have seen it yourselves; why then have you become altogether vain?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각오를 밝힙니까? (3-5절)
What does Job say about his life? (vs. 3-5)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은 지나온 삶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When you look back on your life, what can you say about i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기천(NM)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생애를 비웃지 마라
Don't laugh at my life

마이웨이(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Frank Sinatra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는 명곡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담담히 되돌아보며 비록 몇 가지 후회는 있을지 언정 자신의 길을 떳떳이 살아왔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7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욥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자신은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공의를 붙잡고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비웃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담대한 고백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용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나 날마다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누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삶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There is a song called My Way. It is a song sung by a singer Frank Sinatra. He looks back on his life and confesses that he has thrived in his way, even though he has some regrets.
In today's chapter 27 we find this attitude of life. Job says that as he observed in the past, he will never seek injustice and will always hold onto justice. He states he will not laugh at himself about his way of life. What a wonderful and bold confession is. I do not know how his courage is possible in the midst of suffering.
We need to learn Job's courage. In this short life, we experience so many wrongs and failures, and give birth to things to regret. But as long as your heart stands right toward God, you are people who progress daily toward perfection, even though you are undeveloped now.
To whomever says this life is all about me, God is the only one who can judge your soul. As long as we hold on to God, we have no reason to be ashamed of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8 JUN
목 Thu

지혜와 명철
Wisdom and Understanding

맥잡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광산업에 나름 지식과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땅속을 뚫고 내려가 감춰진 각종 보물들을 찾아내는 인간의 모습에서 욥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욥기 28:1-14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8장

새488장(통539장)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In today's passage, we can notice that Job has deep knowledge and lore about the mining industry. Job reveals a very important fact on a miner's appearance as he penetrates the deep ground to find hidden treasures.

Job 28:1–14

1 "Surely there is a mine for silver, and a place for gold that they refine.

2 Iron is taken out of the earth, and copper is smelted from the ore.

3 Man puts an end to darkness and searches out to the farthest limit the ore in gloom and deep darkness.

4 He opens shafts in a valley away from where anyone lives; they are forgotten by travelers; they hang in the air, far away from mankind; they swing to and fro.

5 As for the earth, out of it comes bread, but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

6 Its stones are the place of sapphires, and it has dust of gold.

7 "That path no bird of prey knows, and the falcon's eye has not seen it.

8 The proud beasts have not trodden it; the lion has not passed over it.

9 "Man puts his hand to the flinty rock and overturns mountains by the roots.

10 He cuts out channels in the rocks, and his eye sees every precious thing.

11 He dams up the streams so that they do not trickle, and the thing that is hidden he brings out to light.

12 "But where shall wisdom be found? And where is the place of understanding?

13 Man does not know its worth, and it is not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14 The deep says, 'It is not in me,' and the sea says, 'It is not with m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은 사람이 땅속에 묻힌 자원들을 얻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4절)
How does Job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a miner gets materials buried in the ground? (vs. 3-4)

욥은 인간이 지하에 묻힌 보물들을 찾아내는 지식과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13절)
What is Job say that even though a miner has the knowledge and ability to find the treasures buried underground, but that he does not perceive? (vs. 12–1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
Place of wisdom

오늘 본문에서 욥은 광산업에 대해 언급합니다. 철과 동, 다양한 보석들을 얻고 제련하는 모습, 사람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갱도를 뚫고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광산업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인류는 이미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귀중한 자원들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들을 채취해 산업과 문명을 발달시켜왔습니다. 동과 철의 발견과 제련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욥이 값진 보석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들보다 값진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속 깊이 감추어진 보석들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들을 제련하는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지만, 정작 그것들 보다 소중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땅속에서 금은보석뿐 아니라 석유와 세일가스까지 채굴하며 기술과학의 놀라운 발달로 인간의 유전자까지 조작하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만큼 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In today's text, Job refers to the mining industry. It also vividly depicts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smelting iron and bronze, various gems, and how people toil through their tunnels and risk their lives in deep underground.
The mining industry has a very long history.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mankind has been interested in the precious materials buried deep in the underground, and utilized those to develop industry and civilization. The discovery of copper and iron and the development of smelting technology were events that marked milestones in human civilization.
The reason Job mentions precious gems is that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gems. People have surprisingly advanced the art of finding out where the hidden gems are buried and smelting them, but they say they don't know where precious wisdom comes from.
Today, human beings are mining not only gold and silver, but also oil and shale gas, and manipulating and creating human genes along with the amaz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are we living in a time of wisdom? Why is the world getting worse and more hurting?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9 JUN 금 Fri

지난 세월이 그립다
I Long for the Past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29장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제부터 욥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담담히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욥기 29:1-16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Reading insight

Hereafter, Job begins to look back on his past and present.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his memoirs?

Job 29:1–16

1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2 "Oh, that I were as in the months of old, as in the days when God watched over me,

3 when his lamp shone upon my head, and by his light I walked through darkness,

4 as I was in my prime, when the friendship of God was upon my tent,

5 when the Almighty was yet with me, when my children were all around me,

6 when my steps were washed with butter, and the rock poured out for me streams of oil!

7 When I went out to the gate of the city, when I prepared my seat in the square,

8 the young men saw me and withdrew, and the aged rose and stood;

9 the princes refrained from talking and laid their hand on their mouth;

10 the voice of the nobles was hushed, and their tongue stuck to the roof of their mouth.

11 When the ear heard, it called me blessed, and when the eye saw, it approved,

12 because I delivered the poor who cried for help, and the fatherless who had none to help him.

13 The blessing of him who was about to perish came upon me, and I caused the widow's heart to sing for joy.

14 I put on righteousness, and it clothed me; my justice was like a robe and a turban.

15 I was eyes to the blind and feet to the lame.

16 I was a father to the needy, and I searched out the cause of him whom I did not know.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
Why do you think Job recalls past years? (v. 2)

29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 보세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Read Chapter 29 slowly. What life did he live?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내게도 좋은 시절이
The good times of the past

오늘의 본문은 욥의 짧은 인생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 아버님이 쓰신 책 한 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아버지가 쓰신 자필 회고록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50년 은퇴를 마감하시며 소량으로 제작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아버님의 삶의 여정과 추억들이 솔직하게 과장되지 않은 언어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직접 지은 시, 수필, 설교문, 각종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책자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작가가 남긴 작품보다 소중합니다. 이따금 꺼내어 읽어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자식들을 위해 꼭 회고록을 남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욥은 이 짧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로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추억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보시며 욥의 마음을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는 훗날 당신의 회고록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지.

Today's text is a short memoir of Job. A wise person has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on his past. He sees the present through the past and hope for the future.
I have a book that my father wrote a long time ago. That is a handwritten memoir by my father as a retired pastor. It is not intended for sale, because he wanted to share it with his family, relatives and acquaintances. It contains my father's faith journey and memories in a language that is not fabricated. The book contains poems, essays, sermons, and photographs of his father's youth. I think this little booklet is more valuable than the work of any great writer in the world. Every time I take it out and read it, I pick up great inspiration and passion. And I vow to leave a memoir someday for my children.
Job recalls his past through this short memoir. It is mainly about how blessed and beautiful life he had once lived. Please read line by line and feel Job's heart and reflect upon it. How can your day be recorded later in your memoi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0 JUN
토 Sat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Young People Now Insult 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0장

새415장(통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앞 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욥은 이제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행복했던 과거와 너무나도 다른 비극적인 현실에서 그의 아픔을 느껴 보십시오.

욥기 30:1-15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5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1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Reading insight

Looking back on his life in the previous chapter, Job now returns to the present time. Feel his pain in a tragic reality that is so different from his happy past.

Job 30:1–15

1 "But now they laugh at me, men who are younger than I,
whose fathers I would have disdained to set with the dogs of my flock.

2 What could I gain from the strength of their hands, men
whose vigor is gone?

3 Through want and hard hunger they gnaw the dry ground
by night in waste and desolation;

4 they pick saltwort and the leaves of bushes, and the roots of
the broom tree for their food.

5 They are driven out from human company; they shout after
them as after a thief.

6 In the gullies of the torrents they must dwell, in holes of the
earth and of the rocks.

7 Among the bushes they bray; under the nettles they huddle
together.

8 A senseless, a nameless brood, they have been whipped out
of the land.

9 "And now I have become their song; I am a byword to
them.

10 They abhor me; they keep aloof from me; they do not hesitate to spit at the sight of me.

11 Because God has loosed my cord and humbled me, they
have cast off restraint in my presence.

12 On my right hand the rabble rise; they push away my feet;
they cast up against me their ways of destruction.

13 They break up my path; they promote my calamity; they
need no one to help them.

14 As through a wide breach they come; amid the crash they
roll on.

15 Terrors are turned upon me; my honor is pursued as by the
wind, and my prosperity has passed away like a clou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고 느껴 보세요. 그의 아픔, 상처, 배신감과 절망, 이 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질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Slowly read the text and feel from beginning to end. His pain, hurt, betrayal and despair; our work in this chapter is not to question but to feel empathy.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Summer passed and Winter comes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있는데,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 한 이야기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회고는 본인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의 과거는 어떤 면에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인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그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모든 인생의 공통분모가 아니지만, 고통은 공통분모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인생과는 너무도 다른 욥의 비극적인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There are three stories that women do not like most about men: jokes about military service, soccer stories, and soccer games in the military. This reminiscence of the past may bring a pleasure to me, but is tedious to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military.
Job's past can be a life we have never experienced in some ways. He lived a richer and happier life than anyone else in the world. Everybody wants to live like Job at least once, but most people may never arrive there. So it makes us feel like hearing somebody else's story.
But we all can identify with Job in his present misfortune. It is because every human being carries big and small pains to some degree. Success is not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life, but pain is. How do you feel from Job's tragic life, which is so different from the happy life of the past? What lesson do you lear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벌레 같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이상호 목사 (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욥기 25–28장은 수아 사람 빌닷과 욥 사이에 벌어진 뜨거운 논쟁입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굽히지 않으려 하는 욥을 향해 빌닷이 훈계하려 합니다. 욥에게 던진 그의 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4–6절)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부패함 가운데 태어난 고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닷이 사용한 "권능"은 원어로 하메쉘인데, "다스림, 통치권"을 의미하고, "위엄"은 파카드란 용어로써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곧 그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은 통치권과 두려움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로 그토록 크신 권능과 위엄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다거나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 썩어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닷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벌레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려 하는가?"라고 빌닷이 욥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 앞에서 인간의 낮은 처지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욥 26:9).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27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맹세하며 바르고 진실된 말만 증언하겠노라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증인이 한 손을 들고 진실만 증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죄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라는 친구들의 비난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 힘썼고, 양심에 비추어 보건대 스스로 책망할 일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지혜의 송가"라고 일컫는 욥 28장에서 욥은 지혜의 가치가 정금이나 은, 남보석, 수정,

홍보석과 황옥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지혜의 출처를 모릅니다. 광산에서 보석을 캐듯 수고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12–13절).

오직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세상의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곧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출처를 아십니다. 지혜를 보셨고, 찾아내셨고, 그것을 선포하셨으며,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주관하고 운행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참된 지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기자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욥 28:28).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엔 없다"라는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 명철한 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란 의미를 함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김입니다. 또한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까닭 없이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며, 고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깊은 흑암 속에서라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8–10). 아멘.

22 JUN 월 Mon

나는 누구도 해한적이 없다

I have never cheated anyon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1장

새426장(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시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31장은 욥의 회고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욥기 31:16-25, 35-38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Reading insight

In Chapter 31, we can see the last reflection of Job on his life. He is recalling of his life and claims that he has lived a life worthy of honor.

Job 31:16–25, 35–38

16 "If I have withheld anything that the poor desired, or have
caused the eyes of the widow to fail,

17 or have eaten my morsel alone, and the fatherless has not
eaten of it

18 (for from my youth the fatherless grew up with me as with
a father, and from my mother's womb I guided the widow),

19 if I have seen anyone perish for lack of clothing, or the
needy without covering,

20 if his body has not blessed me, and if he was not warmed
with the fleece of my sheep,

21 if I have raised my hand against the fatherless, because I
saw my help in the gate,

22 then let my shoulder blade fall from my shoulder, and let
my arm be broken from its socket.

23 For I was in terror of calamity from God, and I could not
have faced his majesty.

24 "If I have made gold my trust or called fine gold my confi-
dence,

25 if I have rejoiced because my wealth was abundant or be-
cause my hand had found much,

35 Oh, that I had one to hear me! (Here is my signature! Let
the Almighty answer me!) Oh, that I had the indictment writ-
ten by my adversary!

36 Surely I would carry it on my shoulder; I would bind it on
me as a crown;

37 I would give him an account of all my steps; like a prince I
would approach him.

38 "If my land has cried out against me and its furrows have
wept together,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은 무엇들입니까?
Job evaluates himself. What are the things he did and things he did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베델교회, 김영훈(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나를 고소하라

"Let my accuser write out the charges against me."

한국에는 인사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장관이나 정부의 요직을 임명하기 이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범죄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학력과 생활기록부까지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욥은 31장에서 과감히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세하게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검증기록에 자신의 친필 사인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악행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라고 말합니다.(35절)
욥이 자신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고난이 합당할 것이나 자신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사청문회장에 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신은 무사히 통과하리라 자신합니까?

In the Korean Congress, there is a procedure called a candidate hearing. For government positions,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nd investigation of their resumes are required. This verification is also extended to their family members. Often, I get dismayed and disgusted when I see the investigation digging deep into the details of the education, extracurricular and even to the comments in their school report. No one lives a squeaky-clean life.
In chapter 31, Job is conducting self-evaluation. He is examining thoroughly how he has lived his life. He vouches for his honorable life and challenges anyone to take his case to God if they find any wrong doings. (v. 35)
Job's self-evaluation shows how desperate he wants to know the reason of his afflictions and misery. He is saying if there is any wrongdoing in his life, he deserves the suffering but he proclaims that there is no wickedness or wrongdoing in himself.
If you were to go through a congress candidate hearing, what kind of outcome do you expect?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pass the hear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3 JUN 화 Tue

엘리후가 화를 내다

Elihu is upset with Job's friend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2장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무려 30여 장에 걸쳐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는 평행선과도 같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답답한 상황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욥기 32:1-10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Reading insight

Over the course of numerous dialogues contained in 30 chapters of the book of Job, it seems like they are going nowhere. Job is protesting that he didn't commit such sin to deserve his misery and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Job's three friends are insisting that there is no such thing called "a perfect sinless person." How can they find an answer in this tumultuous situation?

Job 32:1-10

1 So these three men ceased to answer Job, because he was
righteous in his own eyes.

2 Then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of the family
of Ram, burned with anger. He burned with anger at Job because he justified himself rather than God.

3 He burned with anger also at Job's three friends because
they had found no answer, although they had declared Job to
be in the wrong.

4 Now Elihu had waited to speak to Job because they were
older than he.

5 And when Elihu saw that there was no answer in the mouth
of these three men, he burned with anger.

6 And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answered and
said: "I am young in years, and you are aged; therefore I was
timid and afraid to declare my opinion to you.

7 I said, 'Let days speak, and many years teach wisdom.'

8 But it is the spirit in man, the breath of the Almighty, that
makes him understand.

9 It is not the old who are wise, nor the aged who understand
what is right.

10 Therefore I say, 'Listen to me; let me also declare my
opinion.'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듣기만 하던 엘리후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All this time, Elihu has been silent listening to Job and his three friends' arguments. But he is finally speaking up. What provoked him to do so? (vs 1-3)

가장 젊은 엘리후가 담대히 자신의 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심감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6-9절)
Elihu is the youngest man in this group. Where does his confidence come from to refute the other's arguments and insist the superiority of his logic? (vs 6-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God humbles the wise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회고록(26-30장)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들의 기나긴 논쟁을 마무리 짓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보다 젊은 사람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어른들)이 논쟁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이제서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의 연설(38-41장)을 듣기 위한 준비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지루하게 반복되던 대화의 틀을 벗어나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전 1:27-29) 돌들이 소리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실 까요?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무시해왔던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The long dialogue between Job and his three friends ended. Job repudiates that he did not live a disdainful life that deserves God's punishment. There are no more words from his friends. Maybe this is the moment, God will appear to judge to bring light to their arguments. But not so fast. We see Elihu appearing into the discussion. He is younger than the other friends of Job. He seems like an honorable man who respects the elders and indeed he waited patiently to hear the full arguments.
His speech may be the preface of preparation to hear God's direct words. (chapter 38-41)
Elihu presents a new perspective to embrace suffer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edious and repetitive arguments of Job and his friends.
Often, we think human wisdom can be earned from the years of experience and knowledge. Therefore, we tend to overlook or disregard the opinions of the young people. But "our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1 Corinthians 1:27-29)
Who is God going to use today to talk to you? Are you willing and ready to hear from a person whom you didn't expect or perhaps you have ignor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4 JUN 수 Wed

엘리후가 말하다
Elihu speak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3장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닷없이 나타난 젊은이 엘리후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이전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욥기 33:8-22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Reading insight

When the young man, Elihu, speaks, Job and his three friends are able to hear different perspectives of suffering which isn't always the result of sin.

Job 33:8–22

8 "Surely you have spoken in my ears, and I have heard the
sound of your words.

9 You say, 'I am pure, without transgression; I am clean, and
there is no iniquity in me.

10 Behold, he finds occasions against me, he counts me as
his enemy,

11 he puts my feet in the stocks and watches all my paths.'

12 "Behold, in this you are not right. I will answer you, for
God is greater than man.

13 Why do you contend against him, saying, 'He will answer
none of man's words'?

14 For God speaks in one way, and in two, though man does
not perceive it.

15 In a dream, in a vision of the night, when deep sleep falls
on men, while they slumber on their beds,

16 then he opens the ears of men and terrifies them with
warnings,

17 that he may turn man aside from his deed and conceal
pride from a man;

18 he keeps back his soul from the pit,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19 "Man is also rebuked with pain on his bed and with con-
tinual strife in his bones,

20 so that his life loathes bread, and his appetite the choicest
food.

21 His flesh is so wasted away that it cannot be seen, and his
bones that were not seen stick out.

22 His soul draws near the pit, and his life to those who bring
dea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무엇이라 고 말합니까? (8-12절)
What did Elihu say about Job's fault? (vs. 8-12)

엘리후가 제시하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무엇입니까? (17-19)
What's Elihu's interpretation of human sufferings? (vs. 17-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B(CT)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이원택(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고난은 이유가 있다
There is a reason for suffering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나긴 그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인간의 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인간의 질병으로 육체를 치기도 하시고 아픔과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회복시키고 연단 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The conversation of Job and his three friends are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suffering as a consequence of sin. Job protests that he did not walk in wickedness to experience his terrible sufferings but according to his friends, Job is being punished because of his sin. The sufferings and trials in our lives can't be justified as a result of sins.
Elihu is providing a perspective radically different than three friends. He insists that the source of suffering comes from the goodness of God and not from the sinfulness of humans. He is suggesting that behind human afflictions, there is God's good intention and purpose. In order not to be doomed in sins and destruction but to be saved, God sometimes uses physical sickness accompanied by suffering and misery. He argues that human suffering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to restore and to train those who love God.
Furthermore, afflictions make people to keep their eyes on God and to lean on God which lead people to prayers to restore the spiritual wholeness. Do you trust God even in your sufferings and are confident that God's good purpose in you will be accomplish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5 JUN 목 Thu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Elihu continu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4장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돈 많고 능력 있으며 매사에 빈틈없이 완벽한 아버지, 자녀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라 말하며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 쿨한 아버지, 칭찬도 야단도 치지 않고 묵묵히 지켜 보기만 하는 아버지,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행복할 까요?

욥기 34:5-15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Reading insight

Let's say there is a father who is rich, powerful and perfect. He doesn't interrupt your life and tells you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life. Also, he never chastises or acknowledges you and allows you to do anything you want. If this is your father,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Job 34:5-15

5 For Job has said, 'I am in the right, and God has taken away my right;

6 in spite of my right I am counted a liar; my wound is incurable, though I am without transgression.'

7 What man is like Job, who drinks up scoffing like water,

8 who travels in company with evildoers and walks with wicked men?

9 For he has said, 'It profits a man nothing that he should take delight in God.'

10 "Therefore, hear me, you men of understanding: far be it from God that he should do wickedness, and from the Almighty that he should do wrong.

11 For according to the work of a man he will repay him, and according to his ways he will make it befall him.

12 Of a truth, God will not do wickedly, and the Almighty will not pervert justice.

13 Who gave him charge over the earth, and who laid on him the whole world?

14 If he should set his heart to it and gather to himself his spirit and his breath,

15 all flesh would perish together, and man would return to dus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세 가지 잘못은 무엇입니까? (5-6, 8-9절)
According to Elihu, what are three things Job did wrong? (vs 5-6, 8-9)

엘리후는 욥의 세가지 잘못에 대해 어떻게 반박합니까? (10-15절)
How is Elihu rebuking Job in those three areas? (vs.10-15)

엘리후가 제시하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17-19절)
What is Elihu's answer to the human suffering? (vs. 17-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메트로폴리탄 KUMC, 김진우(NY)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
Is God cold and callous?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욥이 자신이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것, 죄 없는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엘리후는 욥의 세 가지 잘못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합당하게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이득이 될 일은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엘리후의 주장은 논리적이며 별로 그릇된 것이 없는 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정하고 차가운 하나님, 인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간에게 어떤 위로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Elihu points out Job's wrongdoings one by one. First, Job resents and doubts God's goodness but insists on his own righteousness. Second, Job says he is being punished unfairly although he is sinless. Third, there is no profit in living a life according to God's law.
Elihu refutes each of Job's arguments. God is God of righteousness. God repays the acts of the righteousness. God is sovereign God who governs according to His rule and no one can object to His goodness. The good works of human does not profit God and nothing will influence God.
Elibu's theory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seems very logical and it sounds good. But it places God beyond where human can reach. His logic sounds like God is careless, distant and has no interest in people.
Throughout the Bible, it is clear that God hears our cries, He shares our pain, and He is God of mercy. "The God of Elihu" lacks hope and consolation and that is not the natur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6 JUN 금 Fri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다

Elihu Reminds Job of God's Justic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5-36장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욥의 잘못을 매섭게 조목조목 비판한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욥기 전체의 구조와 맥락에서 볼 때 엘리후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욥기 36:1-15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Reading insight

After pointing out Job's sins in detail, Elihu concludes his argument. In the overall scheme of the Book of Job, Elihu's place and function is very important. Now we look into it more closely.

Job 36:1–15

1 And Elihu continued, and said:

2 "Bear with me a little, and I will show you, for I have yet
something to say on God's behalf.

3 I will get my knowledge from afar and ascribe righteous-
ness to my Maker.

4 For truly my words are not false; one who is perfect in
knowledge is with you.

5 "Behold, God is mighty, and does not despise any; he is
mighty in strength of understanding.

6 He does not keep the wicked alive, but gives the afflicted
their right.

7 He does not withdraw his eyes from the righteous, but with
kings on the throne he sets them forever, and they are exalt-
ed.

8 And if they are bound in chains and caught in the cords of
affliction,

9 then he declares to them their work and their transgres-
sions, that they are behaving arrogantly.

10 He opens their ears to instruction and commands that they
return from iniquity.

11 If they listen and serve him, they complete their days in
prosperity, and their years in pleasantness.

12 But if they do not listen, they perish by the sword and die
without knowledge.

13 "The godless in heart cherish anger; they do not cry for
help when he binds them.

14 They die in youth, and their life ends among the cult pros-
titutes.

15 He delivers the afflicted by their affliction and opens their
ear by adversit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7절)
What is Elihu's understanding of God? (vs. 5-7)

엘리후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8-9,15절)
How does Elihu explain the work that God does through human suffering?
(vs. 8-9, 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드허드슨 KUMC, 이용연(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김치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고난이라는 학교
School called 'Suffering'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합니다.(36장 2절) 아주 시건방지고 교만한 말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임박한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Prologue)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곧 등장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요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니 불평하고 따지기보다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층 성숙하게 하십니다.

Elihu claims that he is speaking on behalf of God(36:2). This is a very arrogant and proud statement to make. But his words serve as a prologue to the imminent revelation of God. Elihu functions as one who introduces the message of God who is about to reveal Himself.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his role is like that of John the Baptist who came to prepare the way for Jesus and his ministry.
Elihu's message can be divided mainly into three things. First, God is righteous and God will judge those who are good and evil with justice. Second, God provides instructions to people through the experience of suffering. Finally, God's greatness is unfathomable by human wisdom. Therefore, instead of grumbling or protesting, people should be humble and offer God praise and glory.
Al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all sufferings come from God, God uses the experience of suffering to bring people to new learning and help them to become more wise and matu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7 JUN
토 Sat

주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다
The Lord Speak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7-38장

새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퍼부으십니다. 이것은 욥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욥기 38:1-10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Reading insight

Finally, God speaks out of the storm. God asks Job many questions. This is probably not what Job was expecting. Job wanted God to answer him regarding his sufferings. Why is God asking Job these questions?

Job 38:1–10

1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whirlwind and said:

2 "Who is this that darken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edge?

3 Dress for action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4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Tell me, if you have understanding.

5 Who determined its measurements--surely you know! Or who stretched the line upon it?

6 On what were its bases sunk, or who laid its cornerstone,

7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8 "Or who shut in the sea with doors when it burst out from the womb,

9 when I made clouds its garment and thick darkness its swaddling band,

10 and prescribed limits for it and set bars and door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절) 이 장면은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어떻게 유사합니까?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3장, 19장)
How did God appear to Job? (v. 1) How is this similar to the ways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others in the Old Testament? (Genesis 15, Exodus 3:19)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동물들은 모두 몇 가지 종류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How many animals does God mention? What is common in all these animal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너는 대답해 보아라
Give an Answer!

고대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는 독특한 대화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착각과 허상에 불과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욥이 갖고 있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는 에니멀 플레닛(Animal Pla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수많은 동물과 곤충의 놀라운 습성과 신비를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지, 내가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끊임없는 질문은 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대답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라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의 작은 행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질문을 경외감으로 바꿉니다.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Socrates is known for his unique style of dialogue. His style of dialogue is known for the use of many questions. Through his questioning, Socrates gradually reveals inconsistencies that are inherent in the other person's beliefs and ideas. God is doing something similar in our text today. Instead of answering Job's questions, God challenges Job through His questioning.
I love the TV program called Animal Planet. As I learn about the fascinating nature and wonderful mysteries of countless creatures and life forms, I come to realize my own insignificance in the overall scheme of the grand universe and nature.
Similarly, God's outpouring of questions on Job is intended to help Job to understand his own insignificance in the presence of an everlasting and almighty God rather than to shame him or to avoid his questions.
Galileo discovered that earth is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but that it is only a small planet in the solar system. At the time of this discovery, the church was not willing to accept this truth. What God is doing with Job with His questioning is to bring a similar revolution in Job's thinking. In this kind of revolution of thinking, our questions are transformed into a sense of awe and wond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8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김동연 목사 (알라배마 기쁨의 교회)

할렐루야!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테네시 내쉬빌에 있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약 2,500여 명 참석을 하였고 두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영적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시면 엘리후라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치 않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인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그 이름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그의 출신 배경으로 성경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이렇게 상세히 소개돼 있는 걸 보면 그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고 공부도 나름 많이 하고, 자부심도 꽤 있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욥과 세 친구에 비해 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가 벌인 논쟁을 귀담아듣고 있던 젊은이로서 욥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무능함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Passion for Christ, 참 중요하지요? 열정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아 어떠한 고철도 집어삼키는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육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영적인 건강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과 깨끗한 공기와 근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통한 교회 봉사 및 헌신, 영혼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능력 있는 제자들로, 열정을 가진 주의 성도들로 귀히 쓰임 받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두시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등의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7장 2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옳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풀 수조차 없었던 그 비밀들을 풀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해 주셨던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간증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여러분의 훗날 간증의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주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로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 JUN 월 Mon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Do you still want to argue with the Almight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39-40장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폭풍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온갖 창조의 신비를 통해 욥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대장부 답게 일어나 대답해보라 하십니다. 당신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욥기 40:1-14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Reading insight

After God speaks to Job out of the storm, asking Job about the wonders of creation, Job becomes speechless. God challenges Job to speak and answer Him like a man.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Job before God? We are not that different from Job.

Job 40:1–14

1 And the LORD said to Job:

2 "Shall a faultfinder contend with the Almighty? He who argues with God, let him answer it."

3 Then Job answered the LORD and said:

4 "Behold, I am of small account; what shall I answer you? I lay my hand on my mouth.

5 I have spoken once, and I will not answer; twice, but I will proceed no further."

6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whirlwind and said:

7 "Dress for action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8 Will you even put me in the wrong? Will you condemn me that you may be in the right?

9 Have you an arm like God, and can you thunder with a voice like his?

10 "Adorn yourself with majesty and dignity; clothe yourself with glory and splendor.

11 Pour out the overflowings of your anger, and look on everyone who is proud and abase him.

12 Look on everyone who is proud and bring him low and tread down the wicked where they stand.

13 Hide them all in the dust together; bind their faces in the world below.

14 Then will I also acknowledge to you that your own right hand can save you.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4절)
How did Job respond to God, the Almighty Creator? (v. 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 신승호(CT)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 양현주(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너는 대장부 답게 일어나 말하라
Brace yourself like a man and answer!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신의 강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강해지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단련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성다움을 자랑하기 위해 대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고자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달리고, 더 강하게 던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신의 젊음을 투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육상 선수 볼트는 백 미터를 9.58초에 주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백 미터를 3.2초에 달리는 치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코끼리나 낙타보다도 느리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 아들 녀석들과 레슬링을 많이 했습니다. 힘없는 아들놈이 어른인 저를 이겨보겠다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남자처럼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왠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고 따듯하게 격려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분의 선하심을 인정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Generally speaking, men try to prove themselves through their strength. So many of them work out to build their physical strength. They try to build their muscles and enter into tournaments to show their strength and masculinity.
Athletes also work very hard to show their toughness and prowess. They invest so much time, energy and youth into training so that they can run faster, farther, throw harder and overcome their opponents. The fastest runner on earth today is Usain Bolt who runs 100 meters in 9.58 seconds. But as impressive as his record may be, he is still slower than cheetah that runs 100 meters in 3.2 seconds and even the elephants and camels.
I used to wrestle with my son when he was kid. I remember fondly how my son tried his very best to out-wrestle me who was much bigger than him. When God told Job to brace himself like a man, it sounds like a loving father talking to his own son during a wrestling match. I hear God not rebuking or taunting Job but encouraging and cheering for him.
I believe that God uses the sufferings in our life not as a way of rebuking or breaking us, but as a way of training us to be stronger and mature. I pray that you will seek God more fervently and learn to trust Him in your times of trial as you continue to believe in God's goodness and faithful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30 JUN 화 Tue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심

The Lord Blesses Job

통독본문 Reading Plan

욥기 Job 41-42장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욥기 42:1-10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Reading insight

The Book of Job is coming to an end. Would you say that Job got his answer regarding suffering? What would you say Job learned from his encounter with God?

Job 42:1–10

1 Then Job answered the LORD and said:

2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and that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3 'Who is this that hides counsel without knowledge?'
Therefore I have uttered what I did not underst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which I did not know.

4 'Hear,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5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

6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7 After the LORD had spoken these words to Job, the LORD
said to Eliphaz the Temanite: "My anger burns against you
and against your two friends, for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8 Now therefore take seven bulls and seven rams and go to
my servant Job and offer up a burnt offering for yourselves.
And my servant Job shall pray for you, for I will accept his
prayer not to deal with you according to your folly. For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9 So Eliphaz the Temanite and Bildad the Shuhite and Zo-
phar the Naamathite went and did what the LORD had told
them, and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10 And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Job, when he had
prayed for his friends. And the LORD gave Job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Job learn from his encounter with God? (vs. 1–3)

욥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5절)
What changed in Job? (v. 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우리감리교회, 김동현B(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는 것으로 부터의 자유
Being Freed from the Things You Know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 가요? 그랜드 캐년의 기암괴석, 요세미티 공원, 엘로우 스톤 공원 같은 놀라운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자연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욥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하심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상실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뱉었던 자신의 말들이 부질없는 일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6년, 미국에서 또 4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가며 제가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배운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뵈옵노라고. (5절) 지식이 경험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대 자연을 보며 그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습니다. 경험은 관계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Niagara Falls and stood there speechless at the sight of thunderous waterfall pounding the rocks below? We are so blessed to live in a country where we can experience many natural wonders such as Grand Canyon, Yosemite Park, and Yellowstone Park.
When we stand before these wonders of nature, we are standing in the presence of God the Creator and experience awe that leaves us speechless. This is what Job was experiencing in our text today. Before the majesty of God, Job has nothing to say. He realizes how foolish it was of him to speak of things that he did not really understand.
I studied theology for a long time, six years in Korea and four more years in the U.S. One thing that I learned after spending so much time and resource is that I know practically nothing about God. This is what Job also learned through suffering. Job says, "My ears had heard of you..." To have heard only by ears refers to the human wisdom and knowledge.
Now, Job is ready to make a confession that now he has seen the Lord with his eyes (v.5). This signifies a transition of knowledge into experience. After experiencing the vast universe and wonderful things of the natural world, he has finally realized how useless it is to try to understand God simply through hearing about Him. Experience is a relationship. Job is inviting all of us from having a knowledge about God to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essence of that relationship with God is putting our total trust in the Infinite God. This is the most important lesson that suffering is teaching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❶

❷

❸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10, $20, $30, $50 per month** □ **하루 $1 per day** □ **한달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0년 6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 어느날 갑자기 | 욥 1:6-12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 욥기 14:1-15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암흑같은 세상 | 욥기 24:1-20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고난이 주는 유익 | 욥기 23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 1:6-12**

어느날 갑자기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① 여는 질문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테지만 고난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문득 우리를 방문합니다.

② 본문 이해

언제 인지도 모를 태고적에 하늘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 앞에 신하들이 도열해 서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있고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듯이 보이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았냐고 묻고는 이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되묻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유별나게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욥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열 명의 자녀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가장 복 받은 인생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집니다. 힘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의가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마치 하나님이 의로운 욥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성경이 주장하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놓고 사탄과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이야기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인간 스스로 위안과 지혜, 통찰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3절)

2. 욥이 자신과 가족의 성결을 위해 하였던 하나의 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

3. 사탄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와 (욥기1: 9-10)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한 말은(창 3:1-5) 사탄의 어떤 속성을 보여줍니까?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십시다.

2.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떤 때에 불공평하다고 느낍니까?

⑤ 암송구절 - 욥기 1: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⑥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지 또한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해 봅시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14:1-15**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① 여는 질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일, 불교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할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② 본문 이해

욥기 14장은 인간의 삶과 희망 대한 비극적이고도 처절하고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인간의 삶은 한 송이 꽃과 같아서 피었다 가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시들고 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진 것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이나마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좋으련만, 인간의 삶은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이별에 아파하며, 근심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욥은 고통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송두리때 베어져도 다시 움이 돋아 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도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현재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다시 좋은 때가 올 거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오리라고 희망하십니까? 당신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③ 말씀 속으로

1. 욥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 5절)

2. 욥이 한 그루의 나무에게서 본 희망은 무엇입니까? (7절)

④ 삶 속으로

1.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2. 당신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오리라고 희망하십니까?

3. 당신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⑤ 암송구절 - 욥기 14: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⑥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4:1-20**

암흑같은 세상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① 여는 질문

개인적인 아픔과 상실에 대해 주목하던 욥은 비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이 자신 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욥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② 본문 이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빛이 실종된 세상이었습니다. 힘있는 자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고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힘없고 가난한 과부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바위 틈에서 잠을 청합니다. 성읍은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목격한 욥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 사라지고 말 것이라 말합니다.

2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욥의 개인적 고통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고난이 개인의 고난으로 머물때 우리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이웃의 아픔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불의한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개인의 고난의 경험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욥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2-10절)

2. 욥은 악인의 종말이 어떨 것이라고 말합니까? (17-20절)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암송구절 - 욥기 24:24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⑥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의 삶 주변에서 벌어지는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3**

고난이 주는 유익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① 여는 질문

오늘은 욥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본문 이해

삶의 토대가 붕괴될 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온갖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파산에 직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떠 받치고 있던 삶의 모든 기초와 토대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1) 당신의 삶속에 경험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욥과 친구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욥은 그의 가까운 벗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과 고통만 더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불의 함 때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함께 나누기: 2) 당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 당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

욥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의 소망이며 고난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함께 나누기: 3) 각자의 삶의 고난 가운데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③ 말씀 속으로

1. 로마서 5:1-5에서 바울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후 12:9-10)

④ 삶 속으로

고난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교우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 하십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암송구절 - 욥기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⑥ 자녀와의 나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Job1:6-12

One day suddenly without notice

1 Opening Question

A trial comes without notice. We can at least be prepared if we predict it in advance, but a trial suddenly strikes us at time we do not see coming.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t happened in heaven a long time ago. The meeting is held in heaven. Like the servants stand before a king, the holy people of God are on foot, and Satan appears as if he has just returned from a long journey. God talks with Satan candidly. God asks Satan if he has ever met a man named Job and boasts that there i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 like Job.

Satan then responds to God whether Job fears God without incentive. The reason why Job fears God is because God blessed Job extraordinarily. If He takes away the blessings given to Job, he says Job will certainly curse God. God allows Satan to take everything but Job's life. Thus, Job loses everything he has. Ten children and all their property are lost in one moment. He has fallen from the most blessed life to the most cursed life.

There are sayings, "You reap what you sow", or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There's a cause for everything and there's a fair penalty for what was sown. But we experience that this world is not necessarily so. The poor continue to be poor, and the rich get richer. Powerful man exploits the weak, and injustice is often wrapped up in the name of justice.

Job's story asks why good and righteous persons suffer without cause. The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Satan can be misunderstood as if God is responsible for the misery of righteous Job. Such misunderstandings tend to distort the image of the

good and merciful God claimed by the Bible. God is not one who gambles with Satan over human misery and suffering.
The dialogue between God and Satan in heaven is the product of human literary imagination. God has given humans comfort, wisdom, and insight through the story and the imagination of mysterious realms that are not reasonably explained.

3 Into the Word

1. Who is Job, and how did God bless him? (vs. 1-3)

2. What is one example of what Job did for the sanctification of himself and his family? (v. 5)

3. What attributes of Satan are included in Satan's conversation with God (Job 1: 9-10) and what he said to Eve in Genesis (Gen. 3: 1-5)?

4 Into our Life

1. Let's be honest about how the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Satan makes you feel.

2. When do you feel that this world is unfair?

5 Memory Verse - Job 1:22

"In all this Job did not sin or charge God with wrong."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seriously about how children feel when the world is unfair and how they can control their feelings.

Job 14:1–15

There is hope even for a tree

1 Opening Question

In Buddhism, the four states of human suffering (born, aged, sick and dying) are called the four phases of life that everyone must go through. It is a human reality that no one can deny. But can we sing hope toda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ob 14 is a tragic, dismal, and beautiful description of human life and hope. Human life is like a flower, and after it blooms, it withers at a fixed time. When the rich, the poor, or anybody else are called by God at the appointed time, they have no choice but to put down everything they have and return to God.

It is desirable for us to live a happy and wonderful life in such a short life, but human life is full of suffering: suffering from various diseases, suffering from parting, and worrying in sleepless nights.

Job speaks of hope in the midst of suffering. There is hope even for a tree. Even after a tree is cut, it grows again. Its branches grow constantly, and when the stump is buried in the soil, it is revived when water is supplied. Although in the midst of pain you are now, the tree tells you that when this time of suffering passes, a good time will come again.

What suffering do you endure today? What future do you hope for at the end of trouble? What is the basis for you to sing hope?

3 Into the Word

1. How does Job describe the reality of human life? (vs. 1, 5)

2. What hope did Job see from a tree? (v. 7)

4 Into our Life

1. What suffering do you endure today?

2. What future do you hope for at the end of trouble?

3. What is the basis for you to sing hope?

5 Memory Verse - Job 14:15

"You would call, and I would answer you; you would long for the work of your hands."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Talk to your children about the difficult moment parents experienced. Also listen to your child's difficulties. Encourage, bless, and pray together.

Job 24:1–20

The humanity in darkness

1 Opening Question

Turning away from his personal pain and loss, Job realizes that his tragedy is not just his own problem. What does Job discover through his suffering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today's text we find that Job's eyes are pointing outward. He looks at the world with an outward mindset.

The world he sees is a world without light. It is a society in which the poor are oppressed by the powerful. Orphans are sold as slaves; powerless and poor widows are abandoned. Poor people are driven to the streets because they have nothing to eat and sleep in the cracks because there is no place to escape the rain. The city is full of shouts of wounded and dying people.

Job, who witnesses the reality of this unfair world, says that God will one day judge them, and the wicked will prosper for a while, but eventually wither away like grass.

What we find in chapter 24 is that Job's personal suffering has turned socially into compassion for the weak. When suffering is a personal suffering, it is difficult for us to know the true significance of suffering. Individual suffering opens your eyes to the pain of your neighbors.

Through our hardships, God causes us to look at unjust social realities, to pray, and leads us to action. Individual experiences of hardship have greater significance when extend to social practice.

3 Into the Word

1. What does the humanity look like for Job? (vs. 2-10)

2. What does Job say about the end of the wicked? (vs. 17-20)

4 Into our Life

1. Why do you think God allows us to suffer?

2. What do you think is a desirable Christian attitude to the injustices of this world?

5 Memory Verse - Job 24:24

"They are exalted a little while, and then are gone; they are brought low and gathered up like all others; they are cut off like the heads of grai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about the wrong things happening around your children's lives. Talk with your children about Christians who protested against social injustice.

Job 23

The Benefits of Suffering

1 Opening Question

Today, let's review some important questions over the issues of Job's overall story and reflect on what the story of Job tells u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en the foundation of life collapses

Trials come to everyone. As we live on, we face all kinds of challenges. We fail exams, get sick, lose our jobs, face bankruptcy, and part with our loved ones. Job lost everything he had in one moment. All the foundations that support his life were completely destroyed.

Share it: 1) Remember the hardest moments you have ever experienced in your life. And let's share together.

Job and his friends

Three friends come to Job who endures indescribable suffering. Sadly, Job receives no help from his close friends. They only boost Job's pain and suffering. They condemn Job's suffering in blaming Job's injustice.

Sharing: 2) Whom did you call for help when you were in trouble? What kind of relief did you receive from him/her?

The Benefits of Suffering

Job confesses that one day God will mold him like pure gold through his ongoing suffering. This is Job's hope and the hope of all the believers in their midst of trials. No one wants to suffer, but the paradoxical wisdom the Bible teaches us is that God's

people have new hope through suffering.
Sharing: 3) Let's share what you have learned and realized in the hardships of your lives.

3 Into the Word

1. What does Paul say is the benefit of suffering in Romans 5: 1-5?

2. Why is Paul delighted in suffering? (2 Corinthians 12: 9-10)

4 Into our Life

How do you comfort your family, friends, or classmates in the midst of trial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you can do?

5 Memory Verse - Job 23:10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out as gol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share with our children the stories of the great people who overcame hardship and adversity.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 기도 운동

글쓴이: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인들에게 축복의 날이자 아픔의 날이다. 그날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나라와 민족은 둘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분단된 지 5년 후인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한 남북한의 300만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50만 명의 중국군, 약 5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의 전사자를 낳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 희년 기도 운동이 삼일절인 3월 1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 사이에 열린다. 지난 2월 6일, 한국 서울과 스위스 제네바, 미국 와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도 캠페인 준비 회의 모습. 사진, 아이바스 컵시스, 세계교회협의회.

2020년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정전협정 하에 있는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제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기도 캠페인 준비 회의에서 김진양 목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세계교회협의회의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인 표반석 목사(Peter Prove). 사진, 아이바스 컵시스, 세계교회협의회.

그중 하나가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국교회협의회, 연합감리교회, 한국기독교감리회 그리고 미국장로교회와 같은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진행하게 될 70일 기도 캠페인,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We Pray, Peace Now, End the War!)"이다.

이 캠페인은 2020년 삼일절인 3월 1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 사이에 열린다.

김진양 목사는 제네바의 세계교회협의회에 파송되어 평화 사역을 위해 일하는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다.

김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70 일 기도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숫자에서 나온 것으로, 분단과 이별의 기간을 상징한다. 2019년 12월 2–3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의 〈한반도 평화, 통일 및 개발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이하 EFK)〉의 실행위원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련맹 대표단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의 EFK 실행위원들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도 캠페인을 갖기로 약속했다. EFK가 기도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뻔했다. 왜냐하면 나는 70년 동안 갈라져서 헤어져야만 했던 남북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70년은 너무 길고 너무 많은 햇수다. 그 기간은 어떤 사람에겐 한평생이며, 거의 3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EFK가 심양에서 만나기 전, 2019년 11월 28일 제68차 총

회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다. 그 자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과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총무인 이홍정 목사는 이 기도 캠페인을 "2020년 한반도 희년 평화 운동"이라고 부르며, "1945년 이래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1950년에 시작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 지정학적 '원죄'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단으로 인한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자연에 어긋나게 하는 죄와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총무인 올라브 트베이트 목사는 지난 2월 6일, 서울과 제네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기도 캠페인 준비 회의에서 "올해 2020년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남북한의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미움을 가지고 지난한 삶을 살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기도 캠페인 외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해 희생당한 노근리 희생자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컨퍼런스와 특별 예배가 오는 6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미국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6.25 한국전쟁 발발일 하루 전인 6월 24일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기 위한 캠페인도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의 평화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의 EFK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등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기도 캠페인과 여러 6월 행사를 준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인 김정호 목사는 "나의 선친께서는 홀로 월남한 이산가족으로, 평생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기를 기도했지만 끝내 못 만나고 세상 떠나셨다."라고 자신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밝혔다.

김 목사는 한반도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합감리교회 2016년 총회에서 채택한 "평화, 정의, 화해의 한국(Korea: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 결의안처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8년 8월 와싱톤 DC에서 열린 평화축제 참석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중단과 가족 상봉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연합감리교회는 1988년 이후 총회 때마다 한국의 평화에 대한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해왔다. 2016년 한국 관련 결의안에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장위현 목사는 "한반도는 이분화되고 양극화된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인류 공동체가 결정하게 될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제정치적 환경을 대립에서 대화로, 긴장에서 실질적 화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다. 미국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의료와 인도주의적 도움을 위한 민간인들의 교류를 허용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여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중 두 행사는 서울과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조약 선포식"과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협의회, 한국기독교감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이다.

연합감리교회 위스컨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세계 희년 기도 캠페인에 앞서 이렇게 기도했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냉전을 멈추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가 만나 화해의 꿈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국제관계위원회를 이끌었고, 캐나다 복음주의 루터란교회의 북한원조협의회를 창립했으며, 유엔의 세계식량기구 식량원조부 설립자인 에릭 바인가트너는 전 세계 기도 캠페인에 앞선 예비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모든 인류를 향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한다. 한반도의 70년 된 전쟁의 광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면, 어떻게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가?"

김정호 목사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한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역사다. 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과제로만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역사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세계 공동 기도 예배가 8월 9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8월 15일 세계 희년 기도 캠페인이 마무리된다.

---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결혼 이야기〉와 의정서

글쓴이: 김선중 목사
(South Milwaukee UMC, Wisconsin)

영화 감독 노아 바움백(Noah Baumbach)은 영화 〈결혼 이야기〉는 이혼의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금 재결합하는 모습을 절제 있고 호소력 있게 그려냈다. 넷플릭스의 홍보 영상. Publicity still courtesy of Netflix.com.

"결혼 이야기(Marriage Stor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과는 달리 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남편은 뉴욕에서 연극 연출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내는 결혼 전에는 LA에서 전도유망한 배우였으나, 남편을 따라 뉴욕으로 온 후로는 남편의 연극에 배우로 출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자아가 상실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혼 조정관의 요청으로 상대의 장점을 적어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평화롭게 이혼 과정을 밟자고 동의했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부부 사이에 개입하면서, 이혼 과정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남편과 아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해체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 혈안이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에겐 불리한 증거가 되고 상대방의 사소한 모습, 예를 들어 저녁에 마신 와인 때문에 층계를 내려오다 잠시 비틀거렸던 아내의 모습이나, 자동차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았던 남편의 실수는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안 된다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혼 과정으로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아울러 사랑했던 감

정이 고갈되어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넘어 혐오로 가득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상대방을 향해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발악하듯 잔인한 악담을 퍼부으며, 치명상을 주고받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스스로 놀라 통곡합니다.

올 초, 교단 대부분의 그룹이 서명한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정서다."

"차라리 잘되었다."

"잘못되었으니 거부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교단의 엘리트들끼리만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분열이 현실이 되어가는구나 싶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고,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합의서는 "결별"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미 "분열"입니다.

위에 언급한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방향을 돌려 각기 다른 길을 가는"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나누기 복잡하니 재정의 일부분인 연금만은 예외로 했을 뿐입니다. "화해"와 "은혜"가 "결별"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주려 했지만, "화해"는 "함께 모인다, 연합한다, 감정에 있어 하나가 된다"는 어원적 의미가 있으니, "결별"을 통해 화해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antilogy)입니다.

타인종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분리의 상황이 더욱 불편합니다.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종 목회는 차이/다름을 전제로 합니다. 다름은 내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에 알지 못함 (unknowing)의 영역입니다. 환대하여 맞아들인 낯선 사람이 언제 내 생명을 빼앗는 강도로 돌변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위협과 불안 및 경계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의 힘으로 목회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분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요 1:14).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나누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증오"의 벽을 허무셨습니다(엡 2:14).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줄 알았습니다(고전 9:22).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는 말처럼, 차이를 넘어 다가가는 거룩한 신축성이 타인종 목회를 하며 추구해온 신앙적 가치였는데, 그런 차이를 못 넘고 분열을 하다니요. 차이는 불안과 경계를 가지고 분리하려는 대상이 아닌, 서로를 품어야 할 사랑의 조건이요, 서로를 채우고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힌 몸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4:1–6).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고백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은 목청껏 노래하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 앞에서 분열 이전에, 자신이 입은 상처를 절대화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되려고 "힘써 지키려"는 노력을 끝까지 다 해 본 것인지요?

물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말한다는 것은 전제적이고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큰 틀 안에 함께 머물면서 서로의 독특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일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갈라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혼의 가능성에 관해 묻습니다(막 10:2–12).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노라고(신 24:1–4)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hardness of heart)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한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관계를 모색하는 일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창 1:27; 2:24)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함께 힘쓰던 사람들을 가리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라고 표현합니다(빌 4:3). "짝지어 주셨다"와 "멍에를 같이한다"는 말은 희랍어 원문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모두 멍에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혼은 통계상의 문제로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영적인 피폐함과 육체적인 손상, 사회적인 관계망의 손상과 인생의 실패자라는 암묵적인 조롱 그리고 자존감(self-esteem)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쓰라립니다. 또한 당사자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감당해야 할 상처가 됩니다.

이처럼 갈등이 있다고 교단을 분리시켜 따로 가는 것은 어쩌면 예상 못 할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분리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고, 어쩌면 실족할지도 모를 회중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어찌하겠는지요?

교단의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분리에 이르게 된 것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리를 모색해온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처음 소개한 영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혼 과정에서 관계의 마지막 선을 넘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낸 두 사람의 앙금은 이미 깊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후회한들, 서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은들, 이젠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고, 서로에게 요구했던 양육비 명목의 돈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혼 과정을 마무리 합니다.

전처의 집에 와 있던 전 남편은, 아들이 방에서 엄마가 아빠의 장점에 관해 썼던 편지를 발견하고 읽는 소리를 듣고, 아들 곁에 와 함께 그 편지를 읽습니다.

"난 그를 본지 2초만에 사랑에 빠졌다. 난 평생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영화는 전 아내가 아이를 안고 떠나는 전 남편을 불러 세워 쪼그리고 앉아 전 남편의 풀어진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노아 바움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겪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쩌면 이전과는 달리 성숙한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어 다시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끝자락에서 얻은 그 성숙한 사랑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터입니다.

어떤 분은 동성애에 대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실망하고 원망했던 앙금이 쌓였는데, 그것을 결혼제도라는 형식으로 묶어두어 그 상처가 더 곪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노예제도 이슈로 분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하나가 된 경험이 있으니 비록 지금은 동성애 이슈로 나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가능성을 앞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근원부터 깊이 성찰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는지를 짚어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됨의 가능성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저는 우리 교단의 위계질서(hierarchy)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정회원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소중한 자녀들인 모든 교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이혼의 가능성으로 인해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부부 당사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입니까?

비록 우리가 교단 분리의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첫사랑의 불씨를 살려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동성애 문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쳐두고 갈라서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걸림돌입니까?

성서의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동성애에 관한 성서 본문을 읽으며 진정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야"라는 명분과 자존심에만 초점할 뿐, 실제로는 의견이 다른 이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할 의지도 없이 편협한 모습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교단 또는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볼모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변화될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확산하는 모임들은 빈번히 가지면서도, 함께 모여 뜨겁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입장을 경청하려는 모임은 그만큼 가져보았습니까?

정치적인 계산 이전에 신앙의 근본을, 자신의 입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대신에 공통적인 신학을, 보편적 정신(catholic spirit)과 일치를 그토록 호소했던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을 다시 끌어안으며, 이혼 막바지 상황에서 다시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의롭기에 서로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이혼 후에 평생 겪을 후유증에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들 이혼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성서 본문이 교회력을 따라 설교 본문으로 주어질 때면,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 자신이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서로를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불완전한 사랑밖에 할 수 없었던 제 모습에 절망합니다. 상대방과 자녀들 그리고 저 자신을 비롯한 저의 결혼을 축복했던 모든 이들에 대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결혼의 실패를 성찰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
치유하시는 영을 부어주소서.

상처와 쓰라림의 기억을 치유해주시고,
지난 일들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절망스러운 감정이나 쓸모없다는 감정이
물밀듯 닥쳐올 때,

희망의 영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은총으로 인해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솟아나게 하소서.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온,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할 때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우소서.

과거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하나이다. 아멘.

("Ministry with Persons Going through Divorce,"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p.626; 김선중 목사 번역).

---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휴가철 교인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법

글쓴이: 메리제인 피어스 노튼
엮은이: 오천의, 한인/아시아인 리더 담당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5-7)

미국의 여름방학은 적게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로 참 길다. 이렇게 긴 여름방학 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름 휴가, 가족 모임, 캠핑, 한국 방문, 지역 축제에 참석 등등… 이렇게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도 방학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심지어는 성가대까지 여름방학을 가지는 되는 경우도 있다. 교인들이 휴가를 가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캠핑을 가면서 주일 출석은 점점 더 불규칙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게 된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신앙의 성장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여름 방학 동안 매주 교회와 주일학교를 참석 못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교인들이 가족들을 위한 여름 계획을 세울 때, 특히 부모는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신앙 형성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적으로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1년에 40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만, 부모와 3,000시간을 함께 보낸다.
- 교회는 세례 예식의 약속에 따라서 세례받은 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음에 관해 나누고 신앙을 통한 경험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모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다음은 여름방학 동안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의 예이다.

- 교인들이 여행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하며 다른 교회에 출석하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참석한 교회의 주보를 가져올 것을 격려한다. 주보 앞쪽에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도록 한다.
- 교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교인들을 위한 휴가 상자를 준비한다. 이 상자 안는 어린아이들의 주일학교 자료, 가족의 신앙 경험을 그리기 위한 크레용과 종이로 채운다.

- 2~3개의 봉제 인형을 준비한다. 그리고 인형마다 일기를 함께 준비해서 예배당 앞에 잘 보이도록 배치한다. 교인들에게 여행을 갈 때, "여행 동물" 중 하나를 가져가도록 요청한다. 여행할 때, 일기에 그들이 머무른 곳과 그곳에서 경험한 축복을 기록하도록 한다. 어린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이런 인형을 통해 주중 혹은 주말에 특별한 경험들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다.
- 교인들에게 부모와 자녀가 여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권유한다. 푸드팬트리에 식료품을 기부하거나 노숙자 쉼터의 가족을 위한 장난감을 가져가는 것을 권유한다. 간식을 금식하고 그에 상당하는 돈을 봉사 프로젝트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받는 축복과 주는 축복을 나누도록 하세요.
- 교인들이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준비해서 여름 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읽거나 혹은 그 자녀들이 읽도록 권유하자. 책은 마음의 양식이며 영혼을 살찌우는 책은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의 신앙이 한뼘 자라도록 도와주면,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이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 휴가 오가는 길, 각종 모임에 오가는 길에 자녀들에게 신앙 서적을 읽게 하자.
- 디즈니 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수 많은 관광 명소가 있지만, 교인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여행을 하도록 권유하자. 스모키 산의 예수님의 생애를 밀랍 인형으로 제작한 박물관이나,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노아의 방주 등, 기독교인들이 방문해볼 만한 곳을 여름방학 동안자녀와 함께 떠나도록 권장해보자.

Memo

MISSIONARY OF THE MONTH

Mufuk, Francine Ilunga Mpanga

Advance : **# 3022068**
Country : **Cote dIvoire (Ivory Coast)**
Serving At : **Côte d'Ivoire Annual Conference**
Home Country : **DRCongo, Africa**
Spouse : **Jean Claude Maleka**

Francine Ilunga Mpanga Mufuk is a missionary of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coordinator for Young Girls Ministry in the Côte d'Ivoire Annual Conference in West Africa. She was commissioned in June 2015. Her husband, Jean Claude Masuka Maleka, is also a missionary.

Many young girls, especially in remote area, need the urgent attention of the church with regard to general educat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participation in the life of the church. Francine oversees the conference's work with young girls and women in discipleship, counseling, mentor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The United Methodist conference in Côte d'Ivoire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 Africa. Continuing to emerge from years of civil conflict, it struggles with economic challenges and with limited educational opportunities, notably for girls. Methodism in the country is rooted in British missionary work. It gained autonomy in 1985 and in the early 2000s became part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t has 17 districts and a constituency of some 1 million people.

Francine is originally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where she is a lay member of the Jerusalem United Methodist Church, Lubumbashi City, in the Southern Congo Annual Conference. She holds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rom Africa University, the United Methodist-related school in Zimbabwe. She earlier earned a diploma in technical design and sewing in the Congo and a diploma from the Children's Ministries Institute of the Child Evangelism Fellowship in Kenya. She studied community development at Mulolwa Catholic Institute and peace education at Maria Malkia Catholic Institute, both in the DRC.

"In all my education, I was inspired and empowered to impact our African communities through effective ministries," she says.

Professionally, she has worked for Action Aid to Children and as a trainer in both the Scout movement and in child evangelism. She is fluent in French, English, Kiswahili and Lingala (a Bantu language).

Growing up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rancine was influenced toward a mission vocation by the youth fellowship and participation in church-related Scout work. She was called by God as a Sunday school teacher, and became "passionate about transforming lives of children and young girls" who are often victims, especially in times of conflict such as that experienced in recent times in the DRC. Her husband, Jean Claude Masuka Maleka, was also engaged in children's ministry.

"I have experienced in my life the power of the gospel to change lives," she says. "I believe God called me to do even the smallest action in his kingdom that can demonstrate the grace and mercy of God. The gospel is for all people. I am committed to go with it to the rest of the world to share God's redeeming love."

Francine and Jean Claude have two children, Berthe Mafefe, born in 2001, and Ephraim Masuka Maleka, born i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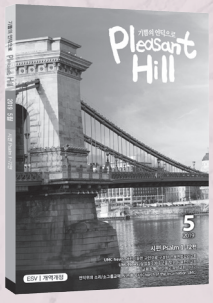
Contact Information : fmasuka@umcmission.org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이승필,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구진모,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권혁인,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덕, 808-347-6112)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조영진,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훈, 718-796-5600)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이원택, 631-499-1260)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박재용, 347-377-0329)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이용연, 845-463-0027)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김치호, 718-332-3270)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벧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탁,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0/01			2020/02			2020/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골로새서	1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주일
02		2	02		주일	02		1
03		3	03		2	03		2
04		4	04		3	04		3
05		주일	05		4	05		4-5
06	갈라디아서	1	06		5	06		6-7
07		2	07		6	07		8
08		3	08		7	08		주일
09		4	09		주일	09		9
10		5	10		8	10		10
11		6	11		9	11		11
12		주일	12		10	12		12
13	에베소서	1	13		11	13		13
14		2	14		12	14		14
15		3	15		13	15		주일
16		4	16		주일	16		15
17		5	17		14	17		16
18		6	18		15	18		17
19		주일	19		16	19		18
20	빌립보서	1	20		17	20		19
21		2	21		18	21		20
22		3	22		19	22		주일
23		4	23		주일	23		21-22
24	데살로니가전서	1	24		20	24		23
25		2	25		21	25		24
26		주일	26	룻기	1	26		25
27		3	27		2	27		26
28		4	28		3	28		27:1-28:2
29		5	29		4	29		주일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28:3-29:11
31		3				31		30-31

2020/04			2020/05			2020/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2	02		2	02		2
03		3	03		주일	03		3-4
04		4-5	04		3	04		5-6
05		고난주일	05		4	05		7-8
06	마태	21	06		5	06		9-10
07	마태	22	07		6	07		주일
08	마태	23	08		7	08		11-13
09	마태	26	09		8	09		14-16
10	마태	27	10		주일	10		17-19
11	이사야	53	11		9	11		20-21
12		부활주일	12		10	12		22
13	사무엘하	6	13		11	13		23-24
14		7-8	14		12	14		주일
15		9-10	15	호세아	1	15		25
16		11	16		2	16		26
17		12	17		주일	17		27
18		13	18		3	18		28
19		주일	19		4	19		29
20		14	20		5	20		30
21		15	21		6	21		주일
22		16	22		7	22		31
23		17	23		8	23		32
24		18	24		주일	24		33
25		19	25		9	25		34
26		주일	26		10	26		35-36
27		20-21	27		11	27		37-38
28		22	28		12	28		주일
29		23	29		13	29		39-40
30		24	30		14	30		41-42
			31		주일			

2020/07			2020/08			2020/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6	01	사도행전	1
02		3-4	02		주일	02		2
03		5-6	03		7	03		3
04		7-9	04		8-9	04		4
05		주일	05		10-11	05		5
06		10	06		12	06		주일
07		11	07		13	07		6-7
08		12	08		14	08		8
09		13	09		주일	09		9
10		14	10		15	10		10
11		15	11		16	11		11
12		주일	12		17	12		12
13		16	13		18-19	13		주일
14		17	14		20	14		13
15		18	15		21-22	15		14
16		19	16		주일	16		15
17		20	17		23	17		16
18		21	18		24	18		17
19		주일	19		25	19		18
20		22	20		26	20		주일
21		23	21		27-28	21		19
22		24-25	22		29	22		20
23		26-27	23		주일	23		21
24		28	24		30	24		22
25		29	25		31	25		23
26		주일	26		32	26		24
27	역대하	1	27		33	27		주일
28		2	28		34	28		25-26
29		3	29		35	29		27
30		4	30		주일	30		28
31		5	31		36			

2020/10			2020/11			2020/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1	01	예레미야	주일	01	요한복음	1:1-18
02		2	02		30	02		1:19-51
03		3	03		31	03		2
04		주일	04		32	04		3
05		4	05		33	05		4
06		5	06		34	06		주일
07		6	07		35	07		5
08		7	08		주일	08		6
09		8-9	09		36	09		7
10		10	10		37	10		8
11		주일	11		38	11		9
12		11	12		39	12		10
13		12	13		40-41	13		주일
14		13	14		42	14		11
15		14	15		주일	15		12
16		15	16		43	16		13
17		16	17		44-45	17		14
18		주일	18		46-47	18		15
19		17	19		48	19		16
20		18	20		49	20		주일
21		19-20	21		50	21		C-1
22		21	22		주일	22		C-2
23		22	23		51	23		C-3
24		23	24		52	24		C-4
25		주일	25	예레미야애가	1	25		C-5
26		24	26		2	26		17
27		25	27		3	27		주일
28		26	28		4	28		18
29		27	29		주일	29		19
30		28	30		5	30		20
31		29				31		21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김영실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도은배 목사 (Church of the Incarnation UMC, IL)

❖ **주일 칼럼**
조희수 목사 (산타 클라리타 감리교회, CA)
김재천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CA)
이상호 목사 (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CA)
김동연 목사 (알라배마기쁨의교회, AL)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